

지금 재판 대검에 파기돼 가지고 지금 재판계류중이  
예요. 계류중인데 밝혀지기는 밝혀집니다.

신찬식 : 아, 그러지. 밝혀지지.

조병길 : 그러나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살아 있는  
데 이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내가 나이가 먹  
어서 죽으면 땅에 들어가면 모를까, 땅에 들어가기 전  
에는 이게 밝혀집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거기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 양반이 알고 해줬겠느냐, 사실상 알고 해줬다면 이  
건 안되지, 그러나 알고 해줬겠느냐, 와서 사정을 하  
다 보니까 해서 준 거다.

신찬식 : 나는 직접 만나도 못했단니까 사정도 한  
일 없고 이인환이가 가져와서 원장님 감정 좀 해주십  
시오 그래서 인자 지가 감정보니 이렇게 해주십시  
오 해서 부탁을 받고 했을 뿐이지. 직접 사정도 안들  
었네. 직접 사정을 저쪽에서 한 것은 이인환이를 중심  
으로 해가지고 사정을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뭐 사무  
실로...

조병길 : 누가요? 이세용이?

신찬식 : 응.

조병길 : 원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세용이하고  
저기 이인환이하고 김형영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신찬식 : 아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알아보시면 내 그냥 내  
진실을 알 거요. 알아보면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  
실 거예요.

조병길 : 그럼 원장님 얘기로는 이인환이가 다 했  
다?

신찬식 : 이인환이가 다 소개를 해왔지.

조병길 : 소개를 해왔고 국과수도 그럼 이인환이가  
했지, 원장님이 한 게 아니다?

신찬식 : 그렇지, 응.

조병길 : 김형영이와 관계도 이인환이가 했다?

신찬식 : 그런 게 주로 왜그러냐면 뭐시기 인자 국  
과수 얘기를 하면은 인자 툭툭툭 우리는 마, ... 내가  
나이가 김형영이보다는 어리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열살 이상 차이가 있는 사람이 ... 말이야. 주  
로 인자 이인환이가 감정도 가져와서 선생님 좀 해주

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이래서 그러세.

조병길 : 그러면 그 서류같은 것 가져와서 김형영  
이랑 상의할 때도 이인환이가 했지, 원장님 안했다 이  
거예요?

신찬식 : 그렇지. 이렇게 조사가 됐으니까 물어보  
시면 알 거여 다. 물어보면 환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

조병길 : 그럼 이인환이랑 김형영이랑 다 했지, 원  
장님은 크게 계재 안했다?

신찬식 : 안했지, 나는 감정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인환이가 가져와서.

조병길 : 이런 식으로 해달라?

신찬식 : 아니 이것 그냥 한글은 비슷비슷하니까  
동일하다 이런 것만 해달라고 해서 아, 그대로 그냥  
해줬을 뿐이지.

조병길 : 동일하게만 해달라?

신찬식 : 응, 아, 그 동일하게 한 게 ... 그때는 잘  
기억이 안하는데 그대로 감정서 들어간대로 내가 한  
거라. 그러니까-

조병길 : 그것도 그러면 이인환이 얘기를 들어서  
한 것이지, 원장님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신찬식 : 그렇지, 말하자면 직접 내가 거시기를 누  
구여, 이세용이를 만나고 그런 법은 없었지 얘기듣고

조병길 : 에이,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 것을 술집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신찬식 : 아니 근계 안 숨겨.

조병길 : 왜그러냐면 그게 만난서 같이 식사했다  
해서 큰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찬식 : 아니 죄가 될 것도 없고 나는 왜그러냐하  
면은.

조병길 : 죄가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인환이가  
되지.

신찬식 : 아니 그런데 사실상 예, 내가 지금 보시  
다시피 몸이 아픈 사람이 이려고 있는데 아주 지금,  
지금 보세요 식사도 못하고 이려고 있는데 이런 상태  
거든. 그러니까 계재를 절대 안할라고 그러는데 인자  
그것은 내용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보시면 알아. 뭐 내가 내 말을 거짓말로 변명할 것도  
없고, 다 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생이 와가지고

인자 그렇게 하는 것은 왜그러냐면 내가 인제 될 수 있  
으면은 그 와서 그렇게 뭐 돈을 이렇게 수고를 하고  
... 너무 내가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조병길 : 아니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몸이 아프  
다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한 거고 원장님이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신찬식 : 응.

조병길 : 내가 무슨 뭐 그걸로 뭐 그런 건 없고

신찬식 : 그럼요.

조병길 : 내가 이미 내가 인제 터졌으니까 사실대  
로 내가 캐러온 거요.

신찬식 : 잘 하셨어.

조병길 : 왜? 영원히 내가 이사장이라는 얘기를 내  
가 하지 않을라고 응? 그래서 온 거고

신찬식 : 아니-

조병길 : 지금 현재도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대 그때 그 내가 아는 걸로는요 지금 조  
사된 걸로 내가 아는 걸로는, 파본 걸로는 이인환이랑

이세용이랑 김형영이랑 넷이 한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했던 말이요 그때 얘기는 오고 갔어요, 오고  
갔다 원장님은 나중에 빠지셨고, 응? 근대 그런 거  
를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원장님 양심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셔야 원칙이지.

신찬식 : 뭐 얘기를?

조병길 : 같이 만나고도 안만났다고 지금 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신찬식 :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시라니까, 인자 알  
아보시면 다 나와. 내가 같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 식  
사한 사실이 있는가, 왜그러냐면 벌써 그 자꾸 ...

조병길 : 그럼 이인환이랑은 주로 어디서 만난 걸  
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이인환이랑 이세용  
이랑은 주로

신찬식 : 전화가 오지, 대한 거시기 뭐여, 대한문에서  
그쪽에서, 저기 덕수궁.

조병길 : 예.

신찬식 : 전화가 와.

조병길 : 덕수궁에서?

신찬식 : 응.

조병길 : 덕수궁 어디?

신찬식 : 아니 덕수궁 앞에서, 인자 그 ... 거기서  
전화가 와. 그럼 내가 인자 물어.

조병길 : 이세용이한테?

신찬식 : 아니.

조병길 : 이인환이한테?

신찬식 : 응, 그누군가? 하면 이세용이구만요 그  
래, 그 자주 만넌가? 자주 좀 만나자면 만나야 되겠습  
니다. 그러면 나가. 전부 이렇게 해서 했지. 실질적으  
로 이세용이 얼굴도 내가 몰랐는데 그때에 이세용이  
집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세용이 집에서 말하자면 이  
세용이를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세용이가 그때 구  
속이 안되었다고

조병길 : 아니 구속되었다 나와서, 나와서 시작한  
거예요. 나와서 10개월 있다 나와가지고, 10개월 있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공탁하고

신찬식 :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조병길 : 그 얘기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공탁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신찬식 : 아니 이세용이가 인자 이렇게 이세용이를  
죽인다고 난리가 났었거든.

조병길 : 8백만원 준 걸로?

신찬식 : 응.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 난리가 나니까 다 터져나올 것 아니  
요?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그래서 인자 나오는 거지. 8백만원 줬는  
데 말하자면 거기서 했다 인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요. 그걸 2중 감정을 했다, 이쪽도 했고 저쪽도 했다  
인자 이런 것도 나오고, 아, 그런 게 다 나오지 뭐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인제 알아보면  
알아, 나는 추해도 거짓이 없습니다.

조병길 : 그러면 김형영이가 나는 거래를 한번도  
안했다 말입니까?

신찬식 : 김형영은 나 거래가 없지. 단, 전화상으로  
만, 전화상으로만 이인환이가 그런 아 그

조병길 : 잘 좀 도와줘라?

신찬식 : 응. 이군이 전화하는데 좀 웬만하면 잘  
좀 도와주지 그래.



조병길 : 누구한테 할 때?  
 신찬식 : 아니 말하자면 저 김형영이가 전화가 오면은 잘 좀 도와주라고 그저 그 정도 있지 뭐.  
 조병길 : 원장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신찬식 : 아니 원장님 하고 사무실로 와, 사무실로 와 근제.  
 조병길 : 응. 국과수에서?  
 신찬식 : 응, 사무실도 있으니까 아, 그 잘 좀 도와 주지 그라, 그저 그런 정도지.  
 조병길 : 그런 정도로만 부탁만 했다?  
 신찬식 : 응, 그런 정도는 뭐. 아니야,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여. 좀 더 알아보시면 난중에 수사해서 다 알아보면 아, 신찬식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나타나. 절대로 ... 내가 뭐 양심껏 나도 그 신앙인 절대로-  
 조병길 : 그러면 거기 원장님으로만 제쳤지, 실질적으로는 이인환이랑 김형영이랑 한 것이지. 원장님은 직접 계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찬식 : 아주 아니지, 그것도 이인환이가 가져와서 이것 감정을 하십시오 아, 그 돈 감정 업무해서 돈-결국 말하자면 취급하는 건데 그래 하십시오 그 래 뭐가? 아, 이게 동일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동일한 것인데 보십시오, 역시 내가 봐도 동일합니다.  
 조병길 : 아, 이인환이 얘기가?  
 신찬식 : 응, 이런 점이, 이런 점이 동일하구나 그러면 그대로 동일하게 찍어.  
 조병길 : 한 사무실이니까.  
 신찬식 : 아니 한 사무실이 아니라 밑에 있었으니까.  
 조병길 : 응.  
 신찬식 : 예를 들어서.  
 조병길 : 직원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찬식 : 응,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체 나한테 전화한 사실도 없고 말하자면 그쪽에서 보안유지를 그렇게 했다고  
 조병길 : 아, 이세용이가?  
 신찬식 : 하면, 보안유지 그렇게 했어.  
 조병길 : 이인환이만 갖다 끼고 보안유지를 했다?  
 신찬식 : 보안유지를 했어.

조병길 : 그러면 이세용이가 보안유지는 철저히 했네?  
 신찬식 : 응, 내가 인자 어저께 말하자면 하는 것은 자꾸 이세용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인자 만났나 그래서 안만났다 해도 이상하든 마 그것이. 별기는 사람이 말이지. 뭐 녹음 아니라 더 해도 사실이, 3인 대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형영이, 이인환이 4인대조를 하더라도 내가 바로 나중에 대질신문하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내가 인자 내가 알기로는 그뒤에 인자 내가 첨 봤지만 조병길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해갔고 이세용이가 지금 끈궁에 빠졌다 나 이런 정보만 들었지. ...  
 조병길 : 그때 당시예요?  
 신찬식 : 아니 그 후에 인자, 그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 같어요?  
 조병길 : 아니요 찾았어요 다 찾았어, 더이상 뭐-김형영이나 인자 고발할 일만 남지, 팔건 다 봤어.  
 신찬식 : 애쓰십니다, 애써.  
 조병길 : 내가 이걸 지금 근 3-4년을 제가 파고 땀겨요 지금요 내가 이것 진실은 꼭 밝힙니다. 왜그러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가 온 국민이 믿어야 할 데인데 일개인의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이인환이는 참 친분관계가 가까우니까, 가깝더라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신찬식 : 당연하지.  
 조병길 : 공무원이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들이 뭐 10% 공정하게만 한다라고도 못보는 거지 또 그때 당시는 이인환이가 나도 모르고 또 김형영이가 나도 모르고 한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똑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신찬식 : 그렇지요, 옳은 얘기에요.  
 조병길 : 그럼 원장님이 알기로는요, 이인환이를 통해 가지고 몇건이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알고 기억하시는 게.  
 신찬식 : 내가 지금 기억나는게 3건, 2건인가 3건. 왜그냐면 이것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몇달 잊어버릴만 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조병길 : 응.  
 신찬식 : 허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래갖고 보면 바로 있으면 하는데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느닷없이 나와. 그 누구 것인가.  
 조병길 : 그러면 이인환이랑 김형영이랑 이세용이랑 연관돼서 한 거는 3건이나 2건밖에 모른다?  
 신찬식 : 응,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건이던데 보니까 내가 할 때는.  
 조병길 : 근데 국과수에서 한 거는 3건밖에 모른다는 얘기에요? 거기 연결한 거는.  
 신찬식 : 그렇지 모르지 내가, 국과수에서 할 때 들어갈 때는 전혀, 전혀 비밀로 했었으니까 나한테도  
 조병길 : 아, 이인환이가?  
 신찬식 : 아, 그렇지.  
 조병길 : 보안유지 해가면서요?  
 신찬식 : 아, 그럼요.  
 조병길 : 지금 원장님이 이인환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찬식 : 아니 어떻게 보고 어찌고간에 일단 내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자 사무실에서 같이 내가 그 영인당이라는 영업소 할 때부터서 데리고 있었거든 이인환이를. 그랬다가 국과수에 그당시에 알선을 해서 취직해 갔다가, 그래서 차석으로 들어갔어. 김형영이 ...  
 조병길 : 저는 지금 그래요 이 문제로 원장님을 저 위에서 조사가 되는 어떻게 하든 원장님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이인환이는 젊은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다 나와 갖고 김형영이의 은인이 된다고 해도 이 ... 어지간한 거를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원장님한테 보여줄 때는, 보여주고 딱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은 몇년을 찾아댕기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예? 한두달도 아니고, 돈 내버려가면서 몇 사람이 움직일라던 하루 움직여도 몇십만원씩 꺼져요 그러면 짐을 내가 저버리고 쫓아댕기면서 내가 이걸 밝힐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 뿐만이 이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여. 원장님이 알다시피 3건이 맞아요 세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신찬식 : 그렇지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래서 내가 기억에 한 3건 정도  
 조병길 : 기억하는데 그렇게 나시는 게 아니예요? 근데 이게 그래요 나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정당하게 벌으면은 어디가서 밥을 사먹어도 맛있는 거요 부정적으로 벌으면은 절끄러운 거고 예? 그러면 젊었을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간에 현실이 참 착실하게 살아야제. 젊었을 때 나쁘게 살았으면 현실에는 착실하게 살다 죽어야지요  
 신찬식 : 당연하지.  
 조병길 : 자식이 있고 식구가 있는데 착실하게 살다 죽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인환씨 집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찾고-  
 신찬식 : 방배동이지?  
 조병길 : 예. 이인환씨 여기 전화 한번도 안왔어요?  
 신찬식 : 안왔어. 내가 그날 전화해도 영 전화가 안되더라고  
 조병길 :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무실에 있을까요?  
 신찬식 : 없어.  
 조병길 :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신찬식 : 뭐 한다고, 다 아는 그런 얘기를 뭐 할라고 합니까?  
 (전화통화 : 아, 인환인가? 오래간만이네. 나 안죽고 지금 살았네. 아, 어떻게 좀 한번 오지. 어찌 안온가? 자네 보고 싶어서 눈빠지게 생겼어. ... 꽃필 때야. 아니야. 그런데 꽃필 때 한번 오게. 응, 꽃필 때나 좀 거식해. 그리고 아, 그리고 어떻게 그리 무심한가 이 사람이. 여기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긴가. 그 래 고맙네, 일 보게)  
 조병길 : 아직 잘 자기는 모르고 있지요?  
 신찬식 : 몰라 아직. 아 지금 전화하다시피 지가 나 여기 있어도 전화 한번도 안오고  
 조병길 : 제가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이인환이나, 교회장님이나 오해 안받게끔 이송운씨가 다 얘기한



결로 돼 있어요

신찬식 : 그렇지요

조병길 : 그리고 또 나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지금 아파서 환자분이신데 참 심적 고통이라도 주면 안되지요. 편하게 쉬게 하고 싶은데, 저도 인제 그렇게 할라고 와서 내가 엇그저께 얘기를 하고 갈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 내가 한번 더 보고 할라고 내가 얘기 않고 오늘 인자 올라온 거여.

신찬식 : 아니 그날 김형영이한테 전화한게 영 기분이 나빠서 그냥 마음이 확 변해버렸더니 실질적으로 아, 그 왜 전화를 했나.

조병길 : 아, 지금 사무실로 전화를 넣어봐요

신찬식 : 뭐?

조병길 : 김형영이한테 전화하면-

(1면 끝)

27일 2면----

신찬식 : ...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인환이 보고 야, 이젠 내가 보는 게 이것이 이러한 것이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오 같어요

조병길 : 이인환이가?

신찬식 :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런 기억이 있구만, 근데 왜그냐면 이인환이가 과학수사연구소에 적어도 차석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했잖아.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말을 많이 듣지. 나는 인자 이쪽 노동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럼 뭐 젊은 사람이 자네가 전문지식이 더 나보다 나니까.

조병길 : 당신이 났다고

신찬식 : ...

조병길 : 이세용이를 그후에 좋게는 안보셨지요?

신찬식 : 그렇지. 나는 원래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세용이 나하고 안만났습니다. 안만나고 딱 우리 사무실에 온 사실도 없고 딱, 이인환이 불러내서 이인환이가 가지고 들어와서 원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었지.

조병길 : 그럼 김형영이하고 만나면 지들끼리 연락 해서 다 만나고?

신찬식 : 응, 만난지는 알았어도, 그리고 또 그때 이인환이가 가자고 나보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안간다. 그런데 개재 않는다.

조병길 : 김형영이하고 셋이 만날 때?

신찬식 : 응, 개재 않는다 니들끼리 가서 해라. 그리고 아니 이세용이하고 이익주하고 셋이 만났다는가 어쨌든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하도 오래 돼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익주하고 셋이 만났다고 하든가 넷이 만났다고 하든가

조병길 : 이인환이하고?

신찬식 : 응, 이인환이하고 저시기랑, 저 저시기 뭐야 김형영이랑. ...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 김형영이가 저 사람이 너무나 컸어. 너무나 커서.

조병길 :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신찬식 : 너무나 커서 실질적으로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을 몰라.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처음에 나를 불러서 소장님 좀- 근무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때는 TO가 주사밖에 되어 있지 않아. 주사 봉급도 적으려니와 아, 내가 옛날에 사무관하던 사람이 와서 주사하셨습니까? 나는 안됩니다하고 내가 거절을 했어. 그래서 단, 내가 내 욕심이 나오면서 소장 추천을 할 테니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천을 한 것이 김형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형영이한테 양복까지 한벌을 받았어. 그리고는 내가 저한테 신세진 일도 없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성격이 그라, 인자 부탁한 사실도 없고 또 내가 지금까지 감정원을 몇년동안 하면서 부탁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병길 : 저 이익준이랑 저기저- 이세용이랑 저 김형영이랑도 만났어요?

신찬식 : 만난 걸로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한번 ...

조병길 : 왜 이인환이가 다 했는데 이익주는.

신찬식 : ... 그러니까 일꾼이라, 요령꾼이여.

조병길 : 누가?

신찬식 : 이세용이가.

조병길 : 아 -

신찬식 : 요리조리 ... 치고 말하자면 그 연락작전

을 쳐놓은 거여.

조병길 : 아, 다른 사람 손을 못대게?

신찬식 : 그렇지,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그러지, 연막작전을-

조병길 : 김형영이한테 다른 사람 손을 못대게?

신찬식 : 그렇지, 연막작전을 딱- 쳐놓은 것이여.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아직 내가 확실한 거는 나 인자 안봤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건 왜그냐면 이인환이는 거짓말 않거든. 자네 어디서 술 먹었는가 어제? 그러면 아, 누구누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답아두는 것이지, 그랬을 뿐이지 뭐.

조병길 : 그러면 원장님은 이세용이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찬식 : 나는 원래가 이세용이를 좋게 안봤다고 왜그냐면 저 뭐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에 한 말이 아니라 저번참에도 내가 욕하면서 했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되었어요

조병길 : 그렇지요. 남을, 문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죽일라하면 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찬식 : 그래 나는 좋게 안봤어. 근데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내가 역반대의 현상이 올 것이다 내가 항상 그래. 언젠가는 이세용이가 또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조병길 :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지지 그제, 영원히 묻히지는 않거든.

신찬식 : 그런데 인자 요는 참 나쁜 얘기로 하는 말이지만 과학수사연구소가 한번은 터져야 돼야. 김형영이가!

조병길 : 나쁜 개 ...

신찬식 : 내가 인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말이 입바른 소리 잘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워낙 극비로 하니까 나는 원래가 인자 이것이 입바른 소리 잘하고 하니까 인자 그냥 별별벌 하면서.

조병길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인환이하고 이익주하고 김형영이하고 한 것이지, 원장님은 크게 개재를 안한 거네?

신찬식 : 개재하지 않고 감정만 해줬다니까.

조병길 : 이세용이랑 모두 위에서 한 거지?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것도 원장님한테는 비밀로 해놓고

신찬식 : 그렇지.

조병길 : 저들끼리 전화로 불러가지고 만나고, 그람 누구 나오라 그러면 이세용이 나오고 그러고

신찬식 : 그래서 알지. 왜그냐면 감정을 하더라도 누구란 것은 알아야 쓰거든 타이틀을, 그러면 누구나? ... 본인이 와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안와. 그런게 나는 내가 속세로 내가 사실 그때는 이런게 저런게 의심을 안했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울치! 니가 용돈 좀 톡톡히 생겼잖구나, 나는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러지 않나해서 공중가격을 주고 나머지는 니가 먹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했지.

조병길 : 김형영이한테 500만원 간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얘기 들어서 아셨어요? 나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찬식 : 아니 그때 한 500만원 되지 않겠나 ... 다만 그런데 그때-

조병길 : 잘 기억해 보세요

신찬식 : 아니 김형영이는 모르니까, 한테 그때- 근데 교육회는 인자 이인환이가 주로 했으니까. 이인환이가 주로 했으니까, ... 주로- 주로 장벽 딱 쳐놓고 인자 그렇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는 인자 저-

조병길 : 이세용이가 하니까 연락은 잘 쳐놓고 하는 거여?

신찬식 : 그럼.

조병길 : 기가 막히구만.

신찬식 : 기가 막히지. 결국은 말하자면 내 사무실에 앉혀놓고 연락 쳐놓고 인자 저희들끼리 비밀로 만나고 딱 사람 절대로 못봐. 그러니까 인자 단, 그러나 감정 혼자 못하니까 원장님 한건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 하는 것이여, 덤으로 하는 것이여. 또 그렇게 해야 보충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

조병길 : 응, 자기 한 게 보충이 되니까, 이인환이가 한 게 인자 보충이 되니까.



신찬식 : 그래서 했을 뿐이지, 나는 전혀 몰라. 어떤 건가 가서 대질해도 몰라요. 이세용이도 나하고 대질하면 모를 겁니다, 몰라도 말만 들어서 알지. 신원장이었던 사람 말만 들어서.

조병길 : 철저하게 연막을 쳐놓고 하나까. 이익주까지 연막 칠 정도 되면은.

신찬식 : 그- 이익주는 저번참에 보니까 주저주저한 그놈의 것은 무슨 놈의 필적이 주저주저가 그렇게 순 주저주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니깐 의심스럽다 이 말이여.

조병길 : 원장님이 내가 알기로 양종석이 짓하고 임봉규 짓하고 내것하고 청탁서 그것 이세용이 짓 세 건 했다는 것 그것.

신찬식 : 양 뭐시기.

조병길 : 양승학.

신찬식 : 모르겠어 ...

조병길 : 장부는 지금 서울 사무실에 있잖아요.

신찬식 : 서울에게 가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 면허증만 나 좀 갖다달라 이것 뭐 신분증이 ... 오면서 면허증만 갖고 왔잖아요.

조병길 : 원장님 면허증 가지고 지들이 해먹는 거예요?

신찬식 : 아니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능사 자격증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꼭 병이 나서야 됩니다.

조병길 : 예, 나아가지고 빨리 올라가시오.

신찬식 : 예, 낮기만 나오면요. 그레 하도 지금 요새는 요새 어쩐지 잠을 잘 못자네요. 잠을 잘 못자고, 사실은 아, 참! 이세용이 것이 지금 나는.

조병길 : 돈이 더 필요하시면요 전화번호 적어줬으니까 전화번호 맞아요. 그것, 다 맞는 거예요 전화번호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집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그러면 자식같고 그러니까 큰 힘은 안되겠지만 제가 도와줘서 낫는다고 보면은 ... 연락을 하세요 부치고 또 뭐 돈 백만원이라도 부쳐드릴 테고, 천만원도 부쳐드릴게요. 관계 없어, 나는 돈에 욕심은 없어요. 욕심 없고 나는 다만 이 진실만은 내가 밝혀야 하겠다는 것

뿐이지, 돈의 욕심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김형영이도, 원장님은 김형영이나 이세용이나는 사실상은 그때 당시는 마음적으로는 안좋아 하셨겠네요?

신찬식 : 나는 그런 부정을 참을 수 없다가, 왜 그러냐면 이 필적이라는 것이.

조병길 : 그런 것 아니까 인자 싫어했겠지. 원장님 아시니까 싫어했겠지.

신찬식 :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조병길 : 예.

신찬식 : 특히 한글같은 것이 이것이.

조병길 : 그냥 뭐 만들어내는 데 그까짓 것.

신찬식 : 응,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 그래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인자 ... 과학적인 ... 되기 때문에 필적은 인자 그런 그- 오묘묘한 이런 필적이 있지.

조병길 : 그럼 주로 만들어놓은 것은 교회장님이 주문하셨나?

신찬식 : 만들어오는 것은 그렇지도 안해. 교회장이 동정은 잘 알아 파악해.

조병길 : 그러니까 인자 그 양반이 ...

신찬식 : 응, 그렇지 인자, 그러면 잘 안해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 파악하니까, 교회장이 사람이 참 좋아요 무척 좋은 사람입니다.

조병길 : 예, 그런게 인제 환하니까.

신찬식 : 응, 환하니까 아 이것 좀 해라 이것, 이렇게 해서 ... 지금 ... 동대문도 뒤집어짜니까 동대문 지금 동대문 자동차 취급하는데 어디드라?

조병길 : 저기 마장동이요?

신찬식 : 응, 그거는 전부 소굴 아니면 소굴.

조병길 : 그거 만드는데 ...

신찬식 : 소굴이여.

조병길 : 전에도 그럼 교회장이 사통해요?

신찬식 : 아니며, 그전에 아니라 대개 동대문에 애들이 많이 거식하니까 그냥, 하도 그래서 그냥 문제가 돼갖고 자꾸 자동차도 그냥 금방 한 시간이 넘어가고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는 해야 돼요. 이게 정화를 못하면 왜그냐면 악화가 양화를 부추여서는 안된다고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악화가 양화를 부추한다는 것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조병길 : 한치준이, 이창열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런 그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 나는 내 문제만 해결할 문제지만 참 보셨고 기억이 난다고 하셨지만은 그거는 참 그 사람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신찬식 : 누구?

조병길 : 저기 한치준이하고 이창열이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 해갖고 그냥, 참 문제야 문제. 근데 인제 이인환이하고 김형영이는 어쩔 수 없이 코가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야 거기 깊이 안 빠졌었지만 그 사람들이야 코가 끼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신찬식 : 나야 뭐 백번 뒤집어 봤든 뭐 ... 얘기만 들어도 박사야. 박사 인제 환하지. 아, 누가 어쨌단다. 꼭 본 것처럼, 같이 한 것처럼, 절대-

조병길 : 항상 이세용이 나쁘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었네?

신찬식 : 그럼, 나는 이세용이-

조병길 : 언젠가는 한번 다칠 거다?

신찬식 : 응, 좋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그날도 이세용이 자꾸 얘기해써서 못하게 한 것 아니에요. 좋지 않은 사람을 자꾸 갖다 부쳐놓으면 되지 않거든.

조병길 : 그나저나 빨리 회복해서 올라가세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인제 이런 걸 아셨으니까 충고를 하고 이인환이도 인자 어떻게 될런 지는 모르지만 똑바로 살으라고 충고도 하시고 하셔야지요. 그 범법행위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이게 터지기 전에는 빠져날 길이 없겠지만 인제 터지고 나면은 착실하게 살아야지요. 그 양반도 본부인이 아니더라도구요.

신찬식 : 죽었어.

조병길 : 예, 근데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죄를 받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범법자가 없어요 못 하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신찬식 : 참!

조병길 : 참 교회장님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 이것 좀 감정...

신찬식 : 그렇지 뭐. 아, 교회장님야 뭐 솔직히 얘기로 아, 이것 ... 똑같이 가서 만들어 오려면 만들어 다 주는 것 뿐이지.

조병길 : 그 사람이 필 알게 뭐여.

신찬식 : 아, 이것 그놈들 있지 전문가들- 아, 그러면 가 알아볼까 이럴 정도로 거식하지 뭐 절대 그것이 돈 받고 하거나 그런 짓도 않고 ... 이 다음에 지켜보시면 알지만.

조병길 : 근데 여기는 ... 뭐 그냥 심부름을 저기 해다 주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요? 내가 여기 찾는데 한 4개월 걸렸어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 이인환이도 나랑 만났어요. 만나도 내가 말 한마디 안했지요. 그러고 말았지. 참! 돈 몇푼에.

신찬식 : 나는요.

조병길 : 무모한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몇푼에 무모한 사람을 징역기는 것을 알고 해줬다면 참 열번 죽어도 마땅하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세용이가 와서 해달라니까 해준 거지 그게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러나 김형영이는 알았을 것이다 이거요, 국과수에 있으니까요, 그럴 것 아니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알았나면은 이익주는 인자 원장님이 얘기 해서 알았고, 인제 그게 꺼꾸로 됐든만요. 이익주가 원장님을 알고 인자 그렇게 됐든만요. 이인환이하고 김형영하고 원장님하고 이세용이하고 이렇게 딱 한걸로 돼 있었다고 그래 인자 그렇게 왔다 가고는 참 이익주는 내가 침 듣는 얘기고, 그렇다고 이익주도 내가 보기에는 협조는 했지만 깊이 빠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신찬식 : 그렇지.

조병길 : 세용이 놈이 인제 ... 한 거지 그놈이.



그렇게 보안유지를 할라면 세놈 다 안하지요 저게. 이 익주는 인제 손을 못대게 연락을 친 거고

신찬식 : 그렇지요. 그건 맞았어 잘 보네.

조병길 : 조금도 눈치는 못했어요 저한테?

신찬식 : 나는 남을 왜그러냐면 내 양심이,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조병길 : 나는 처음에 여기와서 원장님을 보시니까요 나는 얘기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선 환자로 계시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우선 들더라고요 8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아버지는 일찌기 돌아가셨고

신찬식 : 그래서 하! 이게.

조병길 : 우선 사실은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면 원장님을 참 치료라도 빨리 해서 완전히 나아지신 다음에 내가, 서울로 올라오신 다음에 내가 할라고는 내가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이틀에 낫는 것도 아니고 봄 지나서 여름 봐야 어느정도 내가 움직여도 편찮다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신찬식 : ...

조병길 : 악을 좋은 걸 잠수세요.

신찬식 : 예, 돈이 많이 드니까 인자 한테 협조를 참 많이 해주셔서 나 어떻게 고맙던지.

조병길 : 많이 들어도요, 제가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또 더래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악을 좋은 걸로 잠수시라니까요 빨리 회복을 하셔야지요.

신찬식 : 그래서 거시기를 말아야 저 뭐야.

조병길 :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협조를 해서 올라가서 가지고 이런 걸 참 또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걸 해서는 안된다 하고 충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감정원도 다 알으니까 이런 게 갈 테니까 이런 것 해줘서는 안된다. 뭐 하면 그 양반들이 양심이 있는데 알고야 해줄 리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정화 차원에서요 바로 잡아야돼요. 이게 동대문 저기 뭐 난 얘기 들으니까 저기 뭐냐, 마장동 저기 자동차 있는데 저기는 아주 막 소굴이예요 소굴.

신찬식 : 소굴이여, 소굴이여 그러니까 감정들이 말이지. 보면 동일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 아, 잘못 보면 동일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머리예다가 선입감으로 썬 놈들은 도둑놈들 하고 봤을 때 하자가 발견되지,

정상적으로 보면 하자 발견 잘 안된다고 참 그동안이라도 많이 참으시고 ... 마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시다.

조병길 : 아유-

신찬식 : 사실은 내가 ... 솔직히 500만원 가는데 ... 200만원을 이것은 내뒀어, 300만원 써야 되겠다, 그런데 써서라도 일을 매듭지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200만원만 다고, 300만원만 다고 그것도 내가 줬어. 근데 아, 이걸 교회장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서류 이리 내놔, 딱 보더니 고개 살짝 흔들어. 이것이 뭇인가 이 사람이 자네가 이렇게 아파서 누웠는데 어떻게 ... 갖고 왔는가. 아, 그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 (웃음) 그 말을 들으니까 대체 과연 그렇다 그 말이여. 내가 아파서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올 때는 무엇인가 스캔달 있는 것 같다고 인제 그러더라고 아 니 왜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헌병출신인데 머리가 또 좋고, 나이도 인자 우리하고 연갑인데.

조병길 : 그 양반이 이세용이는 몰라요?

신찬식 : 모르지, 모르지 그것.

조병길 : 이 돈만 알겠지 인제, 서류 같은 것 사다 주고 했으니까.

신찬식 :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 아니야, 아까도 내 같이 밥 먹었다고 그때 분위기가 같이 밥 먹었다고 안하면 뭐 나를 믿을 수 있나, 없나 하는데 그것 쓰셨어요? 내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세용이하고 나하고 밥 먹은 사실도 없고, 뭐 같이 앉은 사실도 없고 단, 지금 가서 이세용이하고 같이 만나러 간다하는 것은 알지.

조병길 : 국과수 ... 같이 만나러 간다하는 것은 알지.

신찬식 : 응, 그것은 왜그러느냐면 이군이 얘기를 해서 지금 갑니다 그래요 어? 그래. 가는 거야, 같이 뭐 김사장 만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 : 어디 한군데 기억하는데 없어요? 어디로 만나러 가는가.

신찬식 : 주로 가면 저시기야, 내가 알기로는 불광동 어던지 아마, 불광동 어던지는 모르니까 ... 답변을 못했고, 불광동이 거기서 불려내서 ...

조병길 : ... 주로 저녁으로? 퇴근할 때로?

신찬식 : 그렇지.

(잡음 - 전화통화)

예, 내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인환이가 계속 다했고 그 서류는 고 회장이 해다 줬어요.

예? 이 양반은 인제 원장님으로 계셨고, 거기서 언제 그 이세용이랑 형님이랑 불광동으로 만나러 간다, 퇴근할 때 만나러 간다, 인제 전화가 오면은 원장님 바꿔주기도 하고, 인제 원장님은 협조를 했다면은 김형영이한테 잘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 아니요?

잘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그 저 이- 이 누구지?

신찬식 : 아, 인환이.

조병길 : 이인환이가 해가지고, 예 지금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것 저 누구야 저 이세용이를 나쁘게 보고 언젠가는 저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짐작을 하고 계셨고 지금 양심적으로 다 말씀드리는데 잠깐 내가 바꿔 드릴까요?

예.

괜찮아요.

(신원장에게 전화남김)

—여기 저 거시기 뭐야. 조사장님한테 다 얘기했으니까요 예-

누가요? 아, 이인환이라니까?

조병길 : 이인환이가 했어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

신찬식 : 그것 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조사장한테. (조사장 건네받음 계속통화 내용 반복)

-끝-

자료 마-1-8 (공판기록 2705~2723) 증제27의 8

錄 取 書

錄音場所 남원 소재 한국콘도  
錄音日字 1992년 1월 24일경  
對 話 者 조병길 / 신찬식·이송운  
翻文場所 서울시  
1992. 2. 13

이 記錄은 錄音테이프의 內容과 相違없음을 證明함.

速記士 방영순  
국가공인자격 제89-25-1523호

註 “(——)”은 聽取不能部分임.

對 話 (錄 音) 內 容

신찬식 : 여보세요.

조병길 : 여보세요?

신찬식 : 예 예.

조병길 : 예, 저예요.

신찬식 : 예, 안녕하세요.

조병길 : 예, 지금 도착했어요.

신찬식 : 아, 그랬어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어디 중간에 들렀다 가셨나보지?

조병길 : 예?

신찬식 : 중간에 어디 들렀다 가셨나보지.

조병길 : 예, 아까 전화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천천히 왔어요.

신찬식 : 아, 그랬어요?

조병길 : 예, 아까 편히 죄송해요.

신찬식 : 아, 주말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조병길 : 아이 편히 몸도 불편하시던데요.

신찬식 : 아니예요 뭐.

조병길 : 아이고-



신찬식 :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조병길 : 예.  
 신찬식 : 지금 요새 겨울이 돼서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대요.  
 조병길 : 예, 운동을 스스로 하세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왜 대전 있지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대전에 그 저 뭐야, 아까 그 보여드린 것.  
 신찬식 : 어.  
 조병길 : 예?  
 신찬식 : 어.  
 조병길 : 그것 그 개들은 그 사람들은 잘 알으세요?  
 신찬식 : 아, 거시기야 알지 그럼.  
 조병길 : 누구요?  
 신찬식 : 아, 안다고  
 조병길 : 아, 이세용이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이세용인가 누구지요? 이세용이죠?  
 신찬식 : 예, 이세용.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건 왜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저 구축이 돼갖고 유치장에서 있었거든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때 인자 그 감정을 또 했던 말이야.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공탁금 걸고 나왔거든.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나와가지고 인제 이세용씨가 하면서 인자 그 돈만 그냥 작살을 냈단 말이야.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래가지고 별 성과가 없었지.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래서 인제 다부 이쪽으로 인자 우리 사무실로 나왔다고 그제.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래갖고 인자 우리 사무실 들어와서 그

것은 인자 착수를 했지.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해가지고 저것 해결을 본 거예요.  
 조병길 : 아, 그럼 그때 인자 국과수인가 거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신찬식 : 아, 그렇지.  
 조병길 : 예, 김실장.  
 신찬식 : 현재 중앙에 말이죠.  
 조병길 : 예.  
 신찬식 : 거기 이인환이랄지 고은배랄지 그것 다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래서 그저 기물이고 그 뭐 전화고 전부 내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몸이 안 나아서 이렇게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예, 그래서 우선 이인환이 원장은 그 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조병길 : 예 예, 그 사람도요?  
 신찬식 : 아, 그럼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래서 다 그- 그러나 왜그러면은 그것이 김형영인가 한번 혼이 나서.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한번 혼이 나가지고요 그 솔직히 잘 마 안 통하지.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러니까 인자 그것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자 그 사람 성격도 알고 여러가지를 아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 돈 전하는 방법도 있고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러니까 그것 다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인자 믿고 해야지.  
 조병길 : 내가 알 필요도 없고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건 먼저 그저 누구야 대전 거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이세용이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한번 혼났

어요 그 양반이?  
 신찬식 : 아니 그 거시기 때문에 혼난 게 아니라.  
 조병길 : 그거는 말쟁이 없었잖아요?  
 신찬식 : 그건 말쟁이 없었고  
 조병길 : 하자가 없었잖아요?  
 신찬식 : 예, 하자야 없고 중간에 만나서 일단은 들어가 가지고.  
 조병길 : 예.  
 신찬식 : 인자 하는 방법만 그렇지, 왜그러냐면 이 세용씨는 혼이 나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 이인환이 인자 우리 사무실 있던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자꾸하고 코치해서 또 이인환이 갖고 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다 인자 이렇게 연결 연결 다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다 하고 있지만은 비밀로 해서 하지 말란 소리까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인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웃음) 그야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  
 조병길 : 알았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구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그러면 그저 누구야 김실장? 국과수요 그 양반은 믿어도 되는 거네요?  
 신찬식 : 아, 그거야 주모자 아닙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 사람도 있고 양후열이도 있고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것 인자 어마 말기거든 좌우간 그건 뭐 문제시 될 것 없이 좌우간 인자 선생님이나를 믿으면 한번 맡겨보면 알지.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응,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도 지금 요령 있게 잘 해야 돼.  
 조병길 : 예.  
 신찬식 : 왜그러냐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필적 감정이 뭐 하필이라고 뭐 안해도 된다고 그러죠?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것이 이번에는 혼합 대필이어야 됩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것 저 하게 되면 내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거야 일하기가 좋아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거기도 과학수사 연구소에도.  
 조병길 : 예.  
 신찬식 : 우선은 그것은 틀리니까.  
 조병길 : 예.  
 신찬식 : 일단 그놈 갖고 이진 틀리다 이럴 수가 있거든.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래서 그것이 알리바이 성립을 시키면서 해야지, (웃음) 이것이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요령인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억지로 말이지, 설령 만들더라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예, 그럼요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조병길 : 예, 그래 난 어떤 얘기를 들었나면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그때 그 누구여, ... 이세용인가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조병길인가 있지요 또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놈도 인제 그 거서 국과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도 구속이 됐었다고 하더라구요.  
 신찬식 : 응, 됐었어요 그런데-  
 조병길 : 예.  
 신찬식 : 인자 구속됐다 풀렸다, 구속됐다 그랬는데.  
 조병길 : 예.  
 신찬식 : 사실 이세용이가 인자 많이 작살이 났지.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응, 많이 작살 났는데 원칙은 이세용씨도 그것이 인자 합자한다고 건축관계 여러가지 인자 그



런 것이 아주 참 시끄럽잖아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예, 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인자 참 우습지도 안해요 그것 뭐 다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사건이 돼서 다 알아요.

조병길 : 예, 하여튼요 제가 25일날이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그 내려가서 상세한 말씀 드릴게요.

신찬식 : 예, 그렇게 하는데.

조병길 : 예.

신찬식 : 저희 마침 전화가 왔으니까 내가 전하는 데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오실 적에 그 라디오 말이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라디오, 라디오-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예, 그 조그만한 것 거기서 쓰니 말이지요.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 조그만한 것 하나 사주세요 지금 아마, 만 한 5천원 얼마 주면 살 거예요,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조병길 : 아, 저 들으시게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거기서 들으시게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예, 지금 갖다 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신찬식 : 예 예.

조병길 : 레디오만 나오면 되지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레디오만 나오면 되지요?

신찬식 : 레디오 인자 저 거시기 뭐야 뉴스도 듣고 말이지.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거 인자 성능 좋고 잡음 안나고 잘 한 것 있잖아요.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소리 잘 나와요 요새 인제, 그것 하나 내

가 그 -

조병길 : 아, 내가 갖다 드릴게 선물로 인제, 좋은 걸로 하나 갖다 드릴게요.

신찬식 : 예 예.

조병길 : 그리고요, 저는 인자 신사장 얘기를 내가 듣고 인자 거기까지 갔잖아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갔는데 인제 그 아까 내가 그- 임봉규.

신찬식 : 응.

조병길 : 이세용이 거를.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잘해주셨다고 1년 전에 찾아갔었는데 100% 저도 믿으니까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제가 25일날인가 나오는대로 제가 바로 갈게요 거기서요.

신찬식 : 예, 그렇게 하세요.

조병길 : 예, 그리고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제가 인자 거기 왔다갔다는 얘기는 비밀로 하셔야 돼요.

신찬식 : 아, 그건 나보고 얘기할 것 없다니까.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그쪽이 살라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야지.

조병길 : 예, 저는 틀림없어요.

신찬식 : 일 다 해냈다가 말이야, 그것이 잡음이 되면 안되니까.

조병길 : 그렇죠.

신찬식 : 일단 좌우간 그런지 알고 뭐 여러가지 다 한번 참 저한테 맡기시면은.

조병길 : 예.

신찬식 : 내가 인자 어떤 방법이든지, 왜 그냐... 돈을 주고도 잘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그것이 인자 기술이니까 좌우간 그렇게 아시고.

조병길 : 예.

신찬식 : 잘해보세요.

조병길 : 하여튼 저쪽도 그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심해야 하나가요 하여튼.

신찬식 : 아, 그러면요 ... 다 아니깐요.

조병길 : 조심해서 합시다 하여튼.

신찬식 : 예.

조병길 : 전에 잘하셨으니까 잘 되겠지요 뭐.

신찬식 : (웃음) 예 예.

조병길 : 예, 수고하세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몸조리 잘하시고요.

신찬식 :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 : 예 예.

☐자료 마-1-9 (공판기록 2724~2770) 증제27의 9

錄 取 書

錄音場所 남원 소재 한국콘도

錄音日字 1992년 1월 24일경

對 話 者 조병길 / 신찬식·이송운

觀文場所 서울시

1992. 2. 13.

☞ 이 記錄은 錄音테이프의 內容과 相違없음을 證明함.

速 記 士 방 영 순

국가공인자격 제89-25-15293호

註 "(---)"은 聽取不能部分임.

對 話 (錄 音) 內 容

신찬식 : 지금 다리가...

조병길 : 저기하고는 ... 데 김형영이, 김실장이.

신찬식 : 응.

조병길 : 언제쯤이나 약속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찬식 : 아니, 사람은 내려오라고 예산에 내려온 다니니까, 아 여기서 전화좀 해야되겠구나.

조병길 : 예, 해요.

신찬식 : 근데 김사장하고선 내려오면 다 연락이 되게끔 되어 있어.

조병길 : 아니 그러면 서울서 약속을 하면은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여기는.

신찬식 : 서울서 지금 그런데 아까 택시 어떻게 여 기서 서울까지, 서울까지 가는데 13만원 달라드만.

조병길 : 아니 전화를 나한테 하시면 내가 차를 보 낼 테니까 아무소리 마시고 그냥 올라오세요.

신찬식 : 그래 그렇게 보낸다고, 그니까 내가 참 연락장소 해주고 또

조병길 : 네.

신찬식 : 그 이송운이 필름하고 전부.

조병길 : 오늘 가져 오니까.

신찬식 : 응, 나와야 돼요.

조병길 : 예, 썩다 보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약속을 하면은 나는 그냥 그리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불광동으로 약속하면 가기로 약속하면 거기 내가 바로 가버리지.

신찬식 : 지금은 ... 받는 생각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조병길 : 아니 원장님하고 다 얘기 끝나고, 나하고 인자 이런 얘기 할 때는 거기 어디서 약속을 하면은.

신찬식 : 응.

조병길 : 내가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신찬식 : 내가 인자 사람 내려오라고 그래서 일 하나 시키면서 하면서 어떤 방향을 딱 내가 잡으면은 아니 왜그냐면은 한 1년반동안 완전히 지금 제가 손을 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형영이 생계비, 사람이라는 건 모르거든. 그동안 잡음이 없었어. 왜 그 나하면 절대 문제시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 공기를 인제 알아야 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선 공기를 알아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을 오라고 그러는 게 ... 첫째 공기를 알아야 돼요.

조병길 : 그래요.

신찬식 : 분위기를 알아야.

조병길 : 분위기를 알아야 되지.

신찬식 : 그럼. 그래야지 덮어놓고 툭 되었다가 오

히려 될 일도 안되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조병길 : 거기 술집이 많아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불광동 술집이 많아? 나는 불광동 그쪽은 잘 안가.  
 신찬식 : 많아, 싸롱 같은 것.  
 조병길 : 아냐. 김실장네 집 있는데 그쪽에?  
 (식사하며 잡담)  
 신찬식 : ... 자꾸 이것 저것 번복하지 마세요 인자 요것 어느정도 끝내고 하십시오.  
 조병길 : 아니 요것 두 개만 그냥 하자니까요, 두 개만 하자니까. 두 건만 하자니까 그렇게. 요거 하나 하고 고거하고 내가 고거를 일단 남원 나가서 팩시 알아갔고 내가 불일 테니까, 팩시로 내가 어디 남원 가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체국이나 어디가서 팩시로 내가 불어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사람 도장 찍은 그 사람 필적 요 것만 그럼 원장님 갖다 드리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찬식 : 그렇지요 무슨 팩스로 ...  
 조병길 : 그 상대방 인제 도장하고 필적하고 가져와야 한단 말이여?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야 되는지?  
 신찬식 : 그럼, 아, 인자 서울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차용증서나 예틀 들어서 보관중이나 평소 저 사람이 쓴 그 펜 습성을 알아야 되거든.  
 조병길 : 예, 그렇게 여러개를 갖고 와야지요?  
 신찬식 : 응, 그걸 다 가지고 해서 인자 모방하는 행세로 해서 대충 대부분 똑같다 그래서 비슷비슷하니 동일필적이다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병길 : 근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지.  
 신찬식 : 만든다고 인자 거시기지요, 이렇게 인자 뒤집어서 써보면 요것을 봐서 이렇게 하면 그 습성만 잘 한번쯤 연습을 해서.  
 조병길 : 원장님이 직접 연습 하셔 가지고?  
 신찬식 : 그런데 입증이 있으면 -

조병길 : 어떤 입증요?  
 신찬식 : 아니 돈 거래 그런게 입증만 있으면.  
 조병길 : 예, 그거는 돼요.  
 신찬식 : 입증만 있으면 비단 그것 안써도 청구를 해서 상품거래로 인한.  
 조병길 : 아니 그게 있어야 돼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게 있어야 돼. 감정 딱 해가지고 ... 그런데 필적 여러개 쓰는 것 그거하고 도장만 인자 그 사람 인자 쓰는 도장만?  
 신찬식 : 금액, 금액, 금액.  
 조병길 : 예, 금액하고  
 신찬식 : 일금 얼마다 이게 많아 나와야 돼요.  
 조병길 : 예, 그런 걸 많이 쓴 것하고 일금 얼마다 하고 많이 쓴 것 그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찬식 : 응, 그리고 인자 그 이름하고  
 조병길 : 응.  
 신찬식 : 여러가지 필요없어, 이름하고만 하면 다른 건 전부.  
 조병길 : 다른 건 타자쳐도 돼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근게 뭐뽀를 가져와야 돼요? 그 사람 것 많이 쓴 것.  
 신찬식 : 많이 쓴 것이죠 인자, 저것 필적만 보면 되니까, 필적.  
 조병길 : 예.  
 신찬식 : 필적을 보면 되니까 필적봐서 아, 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인자 그 아니라고 특히 한글 같은 것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잘 안돼야. 한글 같은 거는 인자 가만히 보면 한문도 저 가만히 감정 해 보면 한글 같은 것 비슷비슷한 게 많습시다.  
 조병길 : 한글로 쓴 것 갖고와요? 한문으로 쓴 것 갖고와요?  
 신찬식 : 두 가지를 다 갖고 와야지.  
 조병길 : 한문하고 한글하고?  
 신찬식 : 예.  
 조병길 : 그거하고 도장하고, 금액 많이 쓴 것, 그것만 갖고 오면 돼요?  
 신찬식 : 응... 이사장이 나를 자꾸 죄인을 만들려

고 작정하네.  
 조병길 : 아니.  
 신찬식 : (웃음)  
 조병길 : 인제 나는 허심탄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신원장님 죽지 않아요, 죽어도 내가 죽지,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신찬식 : 그것이 싸움이 붙어놓으면 그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놓으면 감정에서 떼어놓으면 꼼짝 못하지 (웃음)  
 조병길 : 글썽 그래요. 왜 내가 그 이야기 하나면 그 대전 세용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100% 이겼잖아요, 100% 다 끝났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 안할라다가 좀더 있다 이야기해야겠다 하다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신찬식 : 그 사람이 싸인 같은 것 안했습니까? 싸인 싸인 안했어?  
 조병길 : 싸인은 잘 안해요. 이름쓰고 도장찍고 싸인은 그것 모방이 안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싸인 괜찮아요?  
 신찬식 : 알았어요, 이름 고거는 ... 한글로 쓴 것 이름만, 이름만 하면돼 이름만 이름만 나오면 되니까.  
 조병길 : 이름만?  
 신찬식 : 암만.  
 조병길 : 그 사람 필적으로 이름만?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것만 내가 원장님 갖다 드리면 돼요?  
 신찬식 : 그러네요. 그러면 인자 다른 건 다 제치고 서명란에다 ... 딱 이렇게 찍어 넣으면 되지.  
 조병길 : 그것만 인자 모방하면 되네. 그것은 원장님이 가지고 서울로 안올라 가셔도 되게 내가 여기서 보내만 주면 되지요?  
 신찬식 : 예.  
 조병길 : 이놈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신찬식 : 이런 것은 식별불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몰라요.  
 조병길 : 이놈 잘 알아요?  
 신찬식 : 모르겠어요 이름만 갖고는, 사람봐야 알지 이름 갖고는 모르지요. 뭐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러나 이세용이 원체 이 사람이 때가 묻어서 우리 손때에 때가 묻어서 알지요.  
 조병길 : 이거 그러면 치면은 원장님한테 감정 해 가지고 인자 안한 거지요 세용이가요? 의뢰해 갖고요?  
 신찬식 : 그건 인자 형무소 나와갖고 이세용이가 했고  
 조병길 : 이거를?  
 신찬식 : 응.  
 조병길 : ... 사장인가.  
 신찬식 : 형무소에 있을 때 그 대표 사장들이 돌이와 갖고 감정을 의뢰했다고, 그때는 필적감정.  
 조병길 : 아 저기 양  
 신찬식 : 그래서 인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했는데 그때는 인자 이세용이를 잘 몰랐고, 그뒤로 인자 이세용이 일거리가 계속 이놈 데리고 저놈 데리고 다 하는 거라. 하는데 그니까 지금 이세용이 이야기로는 실지 감정을 다 여러 군데를 해봐도 중앙감정원처럼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시다.  
 조병길 : 일꾼이 없나?  
 신찬식 : 응,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난 실질적으로 일을... 일꾼이에요.  
 조병길 : 이세용이가요?  
 신찬식 : 응, 나중에 딱 할 때는 누구불까 싶은 게 전화연락만 딱 하더니 일체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안유지를 하고 했다고.  
 조병길 : 보안유지를 잘하네 이세용이가.  
 신찬식 : 응, 했을 적에 인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인자 하는데 좌우간, 좌우간 참 과학수사연구소 그런데 한장, 글썽 내가 그렇게 들은 것도 같고... 그렇게까지 안했었는데.  
 조병길 : 그건 원장님이 모르지요, 돌이 ... 하는 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찬식 : 나는 될 수 있으면 절대 돈을 많이 권유를 않습니다. 습관되면 안돼, 버르장머리만 못 들어서.  
 조병길 : 거기 주는 것? 국과수 주는 것? 지원해요.  
 신찬식 : 아, 그렇지. 어느정도 주면 되는 것이고,



참 나도 지금 인자 어저께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보니 사실 나 사장님 도와준다 하는 쪽대고 내가 지금 이걸 받았는데.

조병길 : 그렇지요, 아이 그럼요.

신찬식 : 실질적으로 내 몸이 아프니까 필요한 것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조병길 : 그럼요, 그러면.

신찬식 :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대신 일을 이겨는 멋지게 장식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조병길 : 그러니까 그것 두 가지만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살려주시면 됩니다.

신찬식 : 그것을 그 사람들 이름들 필적 갖고 오면 복사 전부다 해서 똑같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조병길 : 그 사람 필적하고요.

신찬식 : 암,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산화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조병길 : 아 전산화로 하는 거요 이게?

신찬식 : 예, 전산화에다가 ... 거기에 넣어가지고 인자 하나까 정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필적 그것을 전달해서 그대로 새겨.

조병길 : 응, 옆에 판 종이에다가?

신찬식 : 응, 아니 종이 아니라 새겨 고무인자로, 그러면 전사하면 그대로 입혀지거든 그대로 입혀져.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대로 입혀지면 그대로 파니까 그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갈 필요 없잖아요.

조병길 : 그러면 여기서는 안되잖아요, 여기 흔적이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으니까.

신찬식 : 하여튼 인자 좌우간 재료가 오면 내가 어디서 하든지간에 그건 그것까지는 신경쓸 것 없고, 그건 내가 신경씁니다. 신경쓰다 보면 안돼요 내가 하는 방법은 아니까.

조병길 : 나는 몰라야지.

신찬식 : 하든요 아실 것도 없고 보내만 쥘 보세요.

조병길 : 그러면 그제 누구여, 김형영이 하고는 이 세용이 하고는 불광동 거기서 처음 만난 거네?

신찬식 : 김형영이는 잘 안만날라고 합니다.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다 나중에서 절대로 잘 안만날라고 그래 한번인가 만났을 거예요 아마.

조병길 : 원장님하고는?

신찬식 : 예, 한번인가 잘 안만날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건이 그 이승운이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운이가 이중, 앞에 치고 뒤에 쳐서 이중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난다 하고 김형영이는 미리서 알아요.

조병길 : 아.

신찬식 : 이승원이 그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앞으로는 일 없어요. 지금 우선 몇 모르고 모두들 일 갖다 맡기지, 그 사람이 전부 친구 뭐고 그냥 배신을 하니까.

조병길 : 김실장이 술을 잘해요?

신찬식 : 잘 했지, 아무나 하고 하는 건 아닌데, 몇 사람 모르겠어 잘 하는데.

조병길 : 아니 원장님 명의로 해야지 아무나 뭐 가서 되나.

신찬식 : 아니 내가 몸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몸만.

조병길 : 글썽 그제 인제.

신찬식 : 몸이 자신 있으면요, 딱 가서 자고 집에 가서 데려다 하고 내가 또 오라고 불러내면 오고 그러는데.

조병길 : 김형영이요?

신찬식 : 암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또 안 만나지 뭐 인자 뭐, 다 그러니까 ... 그건 뭐 문제될 거 없고.

조병길 : 그때도 그럼 원장님하고 김형영이하고 세용이하고 이인환씨 하고는 한번 딱 만나시고 그 뒤로는 저들끼리 만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신찬식 : 근데 왜그나하면은 이것이 일을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초조하다고 그말이야 후닥 날짜, 날짜 오래 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6개월 정도 - 종결이 될 때까지 근 한 8개월 정도 걸렸을 거요 그래서 대전에서 경찰서에다 그건 좀 보류해라 보류해라 해가면서 저렇게 인자 기회를 찬스를 봐 가지고 완전히 그동안에 익혀가지고.

조병길 : 검찰청에-

신찬식 : 응, 완전히 익혀 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요.

조병길 : 그 뭐여 저기도 있더라고요, 대검 과학수사인가 어딘가.

신찬식 : ...엔 문서실이 있어요, 대검찰청에 생겼어요, 생긴 지가 그것이 좀 한 3년 됐어요. 인자 그래서 그 주사들을 데려다가 그 미국 가서 40일간 교육 받고 와서 지금 하는데 오판이 많이 나와요.

조병길 : 거기는요?

신찬식 : 응, 그런데 지금 취조를 안해줘요.

조병길 : 그러면 거기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네요?

신찬식 : 응, 그럼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밖에 신임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자 잘 하는데 이런 일이 간혹 생기잖아요.

조병길 : 이런 건수가?

신찬식 : 절대로 안돼요, 절대로 안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했다 하고 나는 생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웃음) 이 선생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말이야, 아, 참! 세상.

조병길 : 내가 그만큼 봤지요, 아무 일도 못하구요. 이 기록같은 것 참 이게 아무나 띠어주겠어요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변호사 시켜 가지고 박중배 법률사무소 다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거지요.

신찬식 : 박중배씨 한번 만나보셨어요?

조병길 : 예, 한 서너번 만났어요, 이런 것 띠어달라고 의뢰하고, 그 양반도 뭐 돈 주니까 다 하더라고요.

신찬식 : 아니 사람이 참 좋아요 털털하니-

조병길 : 일을 잘 만들어내지 그 양반.

신찬식 : 응, 양반 잘 만들어내.

조병길 : 거기 있다가 원장님하고 연결되었으니까 뭐 100%지 뭐.

신찬식 : (웃음)

조병길 : 이 이름들은 섞여 있네요.

신찬식 : 글썽요 그 서류.

조병길 : 인제 원장님한테 미리 감정을 해놓고 인자 시작을 한 거예요.

신찬식 : 아 그거 아니면 안되는 거여 그것이.

조병길 : 이 이게 그러면 보안 확인서 이걸 마지막 하셨네 신원장님, 그리고 불편해서 못한 거지.

신찬식 : 아니 기존에도 했지, 기존에도 하다가.

조병길 : 아, 그러세요?

신찬식 : 하다가 쪽하고 또 이거 한번에 한게 아니예요.

조병길 : 이게?

신찬식 : 아, 그럼요.

조병길 : 이것도요?

신찬식 : 인제 한건하고 나면 또 인자 몇달 이다 계속 연기해서 하고 저쪽 일 하다보면 또 할만 한 거 또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보안해 나가지, 참 잊어버릴 만 하면 괜히 그 사건 가지고 나와서 또 이거잡는 그런 스타일로 했었어요.

조병길 : 이걸 언제쯤 한지는 모르지요? 잘 기억이 안나지요?

신찬식 : 네.

조병길 : 장부 보아야 알지요?

(잡음 - 회회장과 전화통화)

내다. 아니 전화를 킨을 잘못 뉘가지고 전화를 만졌더라고.

응? 그래서 자네 말이야, 저녁차로 왔다가여, 내일 올라가게.

그런데 그 뭐 감정관계니까 아무것도 아직 ...보기도 얘기하지 말고 그 자네만 나와서 가져가.

왜? 응? 응- 월요일날, 아니 니가 바빠서 ... 그래 가지고 월요일날 오면은 월요일날 네가 울적에 말 이야.

오는데 꼭 와야돼.

나도 몸이 아파서 감정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그 내 면허증 있지, 면허증?

그걸 가져와.

그리고 말이야, 그것 사업자등록증 말이지.

그것 복사를 해서 그것 한 두어개 갖고 오고 말이지.

그래. 하여간 얘기하고 저 거시기 뭐여, 남원 저 고



속도로 있으니까 남원에 가가지고 그 남원서 운봉, 운봉 10분, 10분 걸리니까 와서 전화해도 좋다 하니까. 여기 와서 감정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인자 잘 되면은 멋지게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응응, 월요일날 나 기다린다~)

조병길 : 저기 원장님이 움직일 때는요 나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내가 기사 있으니까 차를 보낼 테니까 서울 올라오시든가 하면은 또 왔다 그냥 그 차로 내려오시면 되니까.

신찬식 : 알았으니까, 인자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니까.

조병길 : 거기 있어요 보세요, 잘 안 써지지요 011-409-4314

신찬식 : 이승

조병길 : 아니요 중.

신찬식 : 이 중자들가?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중식.

조병길 : 몇 번 보시고 그러네, 요게 나의 카폰전화요 내가 돌아다니니까 차 카폰 전화니까 아무때고 연락이 내가 된다고.

신찬식 : 됐어요

조병길 : 그러면 저 양반이 가져갈 것 같으면, 내가 원본을 다 주고 가야 되겠다. 다 이증으로 할 것 없이 그냥.

신찬식 : 필?

조병길 : 원본.

신찬식 : 아니 거기서 필름을 띠어오라니까.

조병길 : 그거하고 거기 다 있어요.

신찬식 : 왜그냐면 인제 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서 지문을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조병길 : 안 찍었어요 찍어놓은 게 없어요

신찬식 : 이승우이한테, 아예 지문을 안했어, 그래 가지고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조병길 : 그러니까 안 찍은 걸로 나오지요 다.

신찬식 : 아니 그러면 대조를 할란게 대조할라하면 말하자면.

조병길 : 다 찍었어요 내가.

신찬식 : 찍었지?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그것이.

조병길 : 네.

신찬식 : 그것이 필름이 있으면 그것 때보면은 인제.

조병길 : 그거 내가 싸다 돌라고 그랬어요.

신찬식 : 응, 그래 다 나오면은 인자 그것이라도 없으면 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거를 그렇게해서 하나가 알았어요 좌우간 이승우 그런 걸 잘 해 줘 내가 인자 근성을 아니까, 이승우 가 어떤 걸 생각하고 지금 할 것이 다 하는 것까지 내가 딱 기록을 하거든요 머리속에다가 그러니까 딱 보면 응.

조병길 : 그 사람 성격을 잘 아니까.

신찬식 : 그럼 그래서 그런데는 결국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건데 그것이 사전에 해야 그렇게 해야 나옵니다. 나와서 이승우이한테 잘 말졌어요 다른 사람은 안해요 잘해야 밟고선 우선 발통을 걸어놓거든 발통을 걸어야 싸움이 되거든.

조병길 : 저기나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국과수나 안부전화나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신찬식 : 누구?

조병길 : 저기 김실장.

신찬식 : (웃음) 필적...

조병길 : 아니 그냥 안부전화나.

신찬식 : 아니야.

조병길 : 몸 불편한지 알잖아요

신찬식 : 아니여, 절대 상관없어요, 교회장 월요일 날 오면 다 내가 들어 멋지게 일을 하고

조병길 : 회장하고도 알아요 김실장하고도?

신찬식 : 아 다 알지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러니까 김실장은 교회장같은 사람을 상대를 안 할라고 그러고, 절대 상대를 안 할라고 그러니까. ... 때문에 친하기는 친해도 절대로 그건.

조병길 : 그때 저기 세용이랑 김실장하고 원장님하고 만날 때 고실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신찬식 : 아니.

조병길 : 그때는 누구누구 만났어요

신찬식 : 이인환이 하고, 나는 인자 공무원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조병길 : 집앞에요, 술집이?

신찬식 : 예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조병길 : 카페요, 림살롱이요?

신찬식 : 카페도 아니고 거시기도 아니다니까 음식 집이나 간단한 거, 그거 김형영이 거판하게 한번 안 먹었어요 성격이 원래가.

조병길 :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신찬식 : 응?

조병길 :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뭐, 그리고 그것만 내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서 도장하고 그 사람 설명한 거요 한문하고 국문 그것만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그거는 어느정도나 잡아놔야 돼요 전부 감정까지 싸다.

신찬식 : 뭐.

조병길 : 그 차용증서나 보관증 만드는 거 돈으로 얼마면 만드냐고.

신찬식 : 필름?

조병길 :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돈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신찬식 : (웃음)

조병길 : 아 할 건 딱 해야지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신찬식 : 그거 인제 알아서 나한테는 그거 알아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알아서 내가 지금 사실상 어저께도 가만히 나는 나로서는 굉장히 참 우리 저 이사장이 은인이라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약을 먹어야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약도 못먹고 뭐 되겠어요, 약을 먹어야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게 참 내가 어떻게 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갚는 방법이라는 것은.

신찬식 : 차라리 이렇게 찍혀 나오면 식별되는데 저것도 확대를.

조병길 : 요거는.

신찬식 : 그것은 인증받을 만한 그것이 참 힘들 거든 인증을 한다는 것이.

조병길 : 그 힘든 문제라도

신찬식 : 응,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직구작구로 해야 한다니까.

조병길 : 응.

신찬식 : ... 말하자면 그래서 내.

조병길 : 그런데 애가 이세용이가 이걸 어디서 했나 이 말이여 이게.

신찬식 : 어떤 걸?

조병길 : 요거를 어디서 만들었나 말여 이게.

신찬식 : 아니 원래가 만들어 있던 걸 아니야.

조병길 : 이세용이한테?

신찬식 : 아 그러면 이세용이한테 서류가 많이 있 다니까, 그 사람들이 해준 서류가.

조병길 : 아-

신찬식 : 그럼.

조병길 : 이 한치준이나 이 사람들이?

신찬식 : 아, 그렇지요

조병길 : 이 사람 필적이 많다?

신찬식 : 응.

조병길 : 필적이?

신찬식 : 많아요, 그건 서류가 많아요

조병길 :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신찬식 : 그럼.

조병길 : 지금 이걸 하는 식으로?

신찬식 : 응, 이게 지금 많아요 서류.

조병길 : 다 알고도 저렇게 있어야 할 일이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요 똑같이? 이게 보관 확인서란 말요? 구속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둘다.

신찬식 : 응, 보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요?

조병길 : 그렇지요

신찬식 : 이게 참 그래서 해봤는데.

조병길 : 명단이 이게 이세용이가 가져 오니까 해 준 것 뿐이다 이거지?

신찬식 : 응.



조병길 : 이게 어디서 한지는 모르는 건 아니며 이거 한지 알으면은 여기가 완벽하게 한 거지, 완벽하게 나왔으니까.

신찬식 : 아니야. 이 서류가 지금 여러가지가 다 여러개가 있어요.

조병길 :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 자?

신찬식 : 아니 이대로 찍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가, 그러니까 인제 그것만은 나온 거지, 나왔을 뿐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것은 아니란 말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안 한다는 거여.

조병길 : 예. 오늘 저녁때 늦게야 손질을 하는데 손질을 뭐가 모르겠어 손질을.

신찬식 : 손질이여 그런 게, 인자 담당하는데 아직 손을 안댄 거래요. 인제 안해 놓았으니 근데 현재 지금 연구를 시켜야 돼. 그렇지 않고는 사실 독촉하지 마세요 나는 명령대로 ... 동안 있다 보니까 틀린 것 같으면 인자 전부 첨부...을 해서 전부 짓을 할 거지, 계산을 참작 ... 변한 게 같애. 조금이라도 틀린점만 있으면 용기 있게 때리는 데 같거든 같은 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전산화한다고 하면은 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 어떻게 철저히 해서 이걸 멋모르는 사람이 성질 급해, 빨리 빠리는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조병길 : 그래서 나는 이거 이 일은, 예?

신찬식 : 응.

조병길 : 늦춰놓고.

신찬식 : 응.

조병길 : 대필 누가 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신찬식 : 응.

조병길 : 이걸 대필은 명단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소송을 넣어야 되는데.

신찬식 : 응.

조병길 :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신찬식 : 그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여, 이렇게 쓰면 소송 되는 것이여?

조병길 : 예 아니죠.

신찬식 : 액면이 틀리잖아.

조병길 : 차용증이 인제 1억 1,700만원.

신찬식 : 차용증을 한장만 쏘니까?

조병길 : 예. 한장은 써야지, 관계없어요 나하고 2-3억씩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 두니까 그리고 반증 증인이 다 있으니까. 다만 차용증만 없다 뿐이지요 증인은 다 있어요. 이걸 ... 가 없어요.

신찬식 : 답변 할라고 하면 안된다니까.

조병길 : 예, 답변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타자로 치시고.

신찬식 : 아니 그 내용을 다 타자로 치고.

조병길 : 예, 예.

신찬식 : 이거 저 자필서명 해야 된다 이거지.

조병길 : 예.

신찬식 : 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증거지, 증거는 자필 서명란이.

조병길 : 진병욱이란 말야. 이게 지금 서명란이요. 이거는 뒤로 미루어 놓으시고 이걸 얼마든지 내가 들 수 있으니까 들어가도 좋고 ... 주니까.

신찬식 : 그럼 그게 바로 답변이지.

조병길 : 예, 이걸 관계 없으니까 여기에서 가져와서 바로 소송 넣을 거니까. 증인 다 해가지고 내가 넣을 거니까 무조건 반 떼어줄 때니까 선불 줄 테니까 내가.

신찬식 : 이게 왜까지 참. 성질은, 그런데 그대신 그사람이 한자 같은 거 쓰는 것이 없는가.

조병길 : 무슨.

신찬식 : 이렇게 하면 1자를 2자를 1자를 한문으로 쓰는 것이 혹시 없나 이 말이야.

조병길 : 아니 전부아라비아 숫자로 써요 국문으로 쓰라고.

신찬식 : 아라비아 숫자로.

조병길 : 예 국문으로요.

신찬식 : 응?

조병길 : 타자로 칠 때 국문으로 그냥 쳐요 그런 관계없이.

신찬식 : 응, 그렇지.

조병길 : 그건 관계없이.

신찬식 : 응, 이것만 영수증 이것만.

조병길 : 예, 차용인.

신찬식 : 응, 차용인 알았어.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인자 누가 보더라도 문의할 거면 틀림없이 이렇게 봐야지.

조병길 : 그렇지요 그래, 감정까지 딱 내어가지고 이인환이 감정까지 딱 내어가지고.

조병길 : 어떻게 해야 돼요.

신찬식 :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병길 : 누구 박.

신찬식 : 응.

조병길 : 박종배?

신찬식 : 다 알지 뭐, 이세용이 사건이 저것이 워낙 큰 거라서 다른 데 가면 이세용이 사건 모든 것 있나요?

조병길 : 근게 다시 안줄라고 그러.

신찬식 : 그럼요.

조병길 : 실질적으로는 이세용이는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여.

신찬식 : 그럼.

조병길 : 근데 더 돈을 어디서 그렇게 갖다 써?

신찬식 : 그 나하곤 들 책임이여.

조병길 : 동대문 그 양반이 하면 틀림없어요, 잘해요?

신찬식 : 틀림없어.

조병길 : 그럼 그걸 타자로 쳐서 보내야 될 거 아니요.

신찬식 : 썩다 해가지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찍어보고.

조병길 : 원장님이 직접 찍어보고.

신찬식 : 누가 보드라도.

조병길 : 틀림없다.

신찬식 : 틀림없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해가지고 가서 잘못 돼서 다시 빠꾸를 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조병길 :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나 걸려요 기일이? 내가 또 영수증 또 갖고 올 테니까 원본을.

신찬식 : 그러.

조병길 : 갖다와야 돼 내가 그러니까 서울을, 원장님하고 딱 대질해보면 알거든 그것 해온 거하고 딱

대질해보면 다 알 수 있어 언제쯤 만들어 그 양반 월요일날 왔다가면 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신다고 해도 화요일날 오게 될 거란 말야 그지요?

신찬식 : 화요일날은 월 수요일날쯤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조병길 : 내가 목요일날쯤 오면 되겠네.

신찬식 : 금요일날쯤 오면 되겠구만.

조병길 : 내가 금요일날 오면 되겠지 그래 오늘이 몇일이야. 30일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30일날 와야 되는데 목요일날,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래 ... 내가 전 화해보고 오면 되지 뭐, 그러면 원본 내가 다 가져오면 되지. 이 송금 한 거하고 어저께 내가 드린 거하고 거기에 쓰세요 다 저건 놔두고 여기서 우리 감정하는 거 놔두고 어제 드린 거하고 송금한 거는 거기에 놔두시라고 여러가지 감정하고 그런데 쓰시라고 일종의 공인하는데 하고 쓰시라고 내가 어디에 쓰던지 알봐도 없고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신찬식 : (웃음)

조병길 : 그러잖아요 뭐 알라고 그렇잖아요 일임만 하시면 되는 거지. 미리 내가 보낼 수가 없단 말야. 팩시가 없으니까 원장님이.

신찬식 : 뭘.

조병길 : 또 원본을 내가 또 팩시로 카피로 또 보내면 몇장 보내버리면 저걸로 내가 가져도 돼요?

신찬식 : 이름만 대조를 하기 위해서 놓고 이 놈이 좋다고 하면 저렇게 나오면 간단해. 아 틀림없지 틀리면 안돼. 종이가 관할 세무서에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여.

조병길 : 응.

신찬식 : 세무서 온라인 말야.

조병길 : 응.

신찬식 : 그래 이승운이가 인자 ... 하기 위해서 ... 있으니까 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인제 나까지 소개되고 우리 이군까지 소개되고 그랬지.

조병길 : 인제 거기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사장은 이걸 인제 쓴 거 가지고 왔을 때 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제 거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800만원 주었을 때 저기 잘 안됐잖아요 그게. 인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신 원장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좌우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이 신원장님이 사무실로 신원장님을 인자 불러가지고 거기서 인자 이...을 인사를 시켜 주었다네요 그뒤로 인자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래 인자 원장님이 한번 만나보아라 이리 된 거란 말여 이게. 그런데 그것 맞아요?

신찬식 : 그때는 ...이 가 구속되었을 때고  
조병길 : 아 나와 가지고  
신찬식 : 응.  
조병길 : 나와 가지고 인자 만났다고  
신찬식 : 나와 가지고는.  
조병길 : 원장님하고 처음에 누구여 이... 이사하고 만날 때는 언제였어요.  
신찬식 :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조병길 : 바로 만난 걸로 아는데.  
신찬식 : 바로 만난 게 아니라 감정이 또 들어왔어.  
조병길 : 예.  
신찬식 :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연결이 되었지. 이것이 인자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연결방법이 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연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면 딱 연락해서 만나면 누구를 대신시키든지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하지. 일을 직접 서로 관련해보면 나중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공무원 생활 안해 보셨지만은 이게 만약에 지금 국가적 가수에서 걸려들면은 여러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병길 :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거요.  
신찬식 : 예,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아주 정신 바짝 챙겨서 배웠고, 그건 인자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괜히 이사장 대신에 일을 하다가도 다 안되는 수가 있단 말야. 그런데 처음에부터 그런 신조를 ... 거는 안되지요 또 그러고 지금 실질적으로 김형영이가 아무리 이세용이하고 그렇게 친한 틈이 없어요 단, 돈이 오가고 했으면 그 당시는 의무적 하지만 이 공직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 말하자면 두다리 절대로 그렇게.  
조병길 :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인제 이공증샀어 이걸 인제 할 때는 연결돼서 돈이 오고갔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건이 부탁을 하면 받아

주지 않을까도 싶어요 근데 이 사건이야 하겠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사건을 그 이세용이란 사람이 부탁을 하면 받아줄까 이세용이가.

신찬식 : 자신만은 신대로 한번 해보세.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단지 그것이 부당하고 원만히 되어서는 안되거든. 또 실질적으로 나는 실질적으로.  
조병길 : 그러면 원장님이 말예를 들어서 인제 요즘에 가게 하다보면 2,000만원 놔두고 2,000만원 다 들어왔으니까 놔두고 월요일이나 이때쯤 의논을 하고 통화하시든지 만나시든지 하는 건 모르겠고 하시고나서 원장님 이름으로 내가 구좌에다 넣어주면 내가 있다 안전하게 넣어주면 돈은 다.  
신찬식 : 누구를?  
조병길 : 더 원장님하고 연락이 되면  
신찬식 : 해결 다 한 다음에?  
조병길 : 응.  
신찬식 : 아, 그래도 되지 되기가 하도 돼 되게.  
조병길 : 원장님 이름으로 그냥 넣어주어 버리면 되니까.  
신찬식 : 응 그러면 되는데 원장님 내 이름으로 넣으면 돼.  
조병길 : 응.  
신찬식 :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좋고 뭐 그런 건 문제될 게 없어.  
조병길 : 그런 게 1,000만원 이거 가지신 거는 그냥 어디다 쓰든지 나는 관계 없지요 않고 내가 인자 그 양반한테 안전하게 할라니까 그 양반한테 내가 다 독거리면은 원장님이 해준 걸로 해주면은.  
신찬식 : 아 글썽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건 뭐 충분히 월요일날 연락을 해서 그렇게 그동안.  
조병길 : 화요일날쯤 나랑 전화좀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줘 버리면은 그러면 그 양반하고 몇일 있다 무조건 하나 갈 테니까 잘좀 도와줘라 하면 되지.  
신찬식 : 응... 아 그거야 ...  
조병길 : 그렇게만 하면.  
신찬식 : 나는 그 서로들 돈 입장도 생각을 여러가지 해서.  
조병길 : 아 그러면 염려할 거 없고요.  
신찬식 : 아 그거야 뭐 좋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세용이를 될 수 있으면 김형영이하고 교체를 하는 것을 김형영이 그렇게.

조병길 : 그래 하겠지.  
신찬식 : 표현상으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절대로.  
조병길 : 다른 사건 가지고는 좀.  
신찬식 : 절대 만약에 이세용이가 다른 사건 가면 아 저것이 부로 커구나 인생이 처절해져.  
조병길 : 김형영이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은요.  
신찬식 : 아 그러면 대번에 부로가 그 상대를 압니까 모른다고 다 거절하지. 저 죽을라고요 그 사람은 형무소 생활 8개월을 했어요.  
조병길 : 누가요?  
신찬식 : 김형영이가.  
조병길 : 응.  
신찬식 : 그러니까 일을 왜그러느냐면 이렇게 해보면 참말이.  
조병길 : 아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인자 저녁에는 서로 인자 전화 대화가 다 되니까 있다가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구좌번호 알으면은 내가 월요일날 또 온라인 가지고 송금해서 월요일날 ...이한테 은행에서 붙여주든 말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월요일날 또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같이 원장님이 직접 붙여주든가 하면은 우선은.  
신찬식 : 쉬운 게 아냐요, 글썽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저 마음은.  
조병길 :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조금만 해주시면.  
신찬식 :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탁이 되기 전에 돈이 앞에 간다는 것도 그게 상대도 좋지 않는 일일지도 모르고  
조병길 :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나이가 어리니까 원장님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나면 인자 감정을 하나 말었는데 원장님이 하실 거니까.  
신찬식 : 응.  
조병길 : 틀림없는 거니까 니가 어떻게 손질좀 잘 해줘라. 내가 하여튼 인자 원장님 서로를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달 말경 1월 15일쯤 하나 들어갈 테니까 그때쯤 잘좀 해줘라 왜그냐면 구정이란 말여 내일 모레가, 구정을 기해서 이렇게

다하면은 좋지 않느냐.  
신찬식 : 그렇지 그건 뭐 백번해도 좋단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번하는 건 좋습니다 백번해도 좋은데 나는 순서를 일단 차복차복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한 건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는 백번도 좋아요.  
조병길 : 나는 여기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그렇게 내가 합의만 딱 되면은.  
신찬식 : 응.  
조병길 : 나도 여기 인자 오지도 않을라고 자꾸 만나는 것도 안좋고 그냥 이걸 원장님 아무 상관 아니야 그니까 감정만 나하고 가지고 있다가 고발을 인자 하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 ... 정식으로 들어가면 인자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는 일체 안만날라고 그러지 지금. 그게 편하잖아요 사람이 원장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되고  
신찬식 :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원이다. (웃음) 아이고 참 답답하고 아이고 알았어요.  
조병길 : 또 한 9시쯤이나 이때쯤이면 다들 들어오실 거란 말여요.  
신찬식 : 그런데.  
조병길 : 임부장님도 집에 들어올 때면 다 들어올 거란 말여요 그러면 집에서보다 집에서 하셔도 괜찮고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하셔도 되겠냐고 그러면 인자 바로 온라인번호만 알았으면 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안가고 여기 있다가 돈을 갖고 내가 여기서 했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나 맘 편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빵으로 난 편하다 그렇잖아요.  
신찬식 : 그거 오늘 전화들.  
조병길 : 토요일이니까 뭐 내일 노는 날이니까 편찮지.  
신찬식 : 아니 근데 지금 집에 전화번호를 옮겼거든.  
조병길 : 응 어디로요?  
신찬식 : 저 불광동으로, 불광동 전화번호를 내가 잘 모른단 말여. 거시기에 있다가 이쪽 있다 그쪽에 옮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을 거여.  
조병길 : 안들어갔어요 아직 일러



조병길 : 저기한테 물으면 안될까 저녁에 이 누구지? 이인영씨?  
 신찬식 : 이인환이?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렇게 이인환이 지금 내가 오늘 사무실 한 사무실이며, 지 전화번호가.  
 조병길 : 응.  
 신찬식 : 오후장이랑 같이 있어.  
 조병길 : 이인환씨 집에 들어가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신찬식 : 그렇게 그것이 지금 전화번호가 788- 책을 갖다놓고 있어야 돼. 나 도대체 그런데 그것을 ... 그렇게 생각이 나는구나 자꾸 그러니까.  
 조병길 : 그리 이시간 지 얼마나 되었어요?  
 신찬식 : 얼마 안되지.  
 조병길 : 이시간 후 생각을 세우이하고 만났다 이 시간 후에?  
 신찬식 : 응.  
 조병길 : 세영이 만날 때는 김소장과 같이 만날 때는.  
 신찬식 : 그렇지 이시간 후가 되지 그쪽에서 있다 가.  
 조병길 : 어디예요?  
 신찬식 : 불광동쪽이라니까.  
 조병길 : 집은 모르시고  
 신찬식 : 응, 옛날에는 저기 거시기 정릉가는데 살 있어.  
 조병길 : 그리 이시간 지 얼마나 되었어요? 불광동으로 이사갈 때.  
 신찬식 : 한 2년 남짓 되었을 걸 그런데 이걸 갈 때.  
 조병길 : 거기 누구여 인환씨랑 원장님하고 세영이랑 거기서 ... 오기 전에 술 한잔 했다고 식사 했었다고  
 신찬식 : 응,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정 실장이 좀 딱딱하지 비워 마치고가 상당히 딱딱한 편인데 그것이 인자 잘못하면 그렇게 특히 예를 들어서 돈을 딱 주면 이유 없이 보내는 건.  
 조병길 : 이유 없이 보내는 건 아니지.

신찬식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병길 : 예.  
 신찬식 : 무슨 내용을 사전에 숙의가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 가야지 숙의가 안돼 돈이 툇 앞에 들어가면 그건 행여나 저를 잠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병길 : 예.  
 신찬식 :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조병길 : 원장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그 양반이.  
 신찬식 :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공무 문제 석상이고 혼이 나는 사안이라서 다 칠 거 다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조병길 : 이세영이는 이런 거 해주고는 혼난 거는 없잖아. 아무 문제 되는 거는 없잖아요.  
 신찬식 : 없지만은 그때는 이세영이도 안 온다고 자기를 했습니다.  
 조병길 : 아.  
 신찬식 : 그래서 이 분이 하도 붙잡고 사정을 하고 나는 인자 결과적으로 안들었어.  
 조병길 : 누구 이인환씨?  
 신찬식 : 응, 이인환씨 심장 약혀. 이인환씨가 그 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를 했거든 그 인환이도 말하자면 내가 추천을 해서 출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인환이하고 나하고는 붙어 있는 이유가 나도 인제 적극적으로 나는 인자 공무원생활을 이렇게 죽 늙었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년되고 이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스타일이란 말야.  
 조병길 : 그러면 뭐 서두를 것 같은 건 그런 것을 잘 안할라고 하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게 했는데 단, 이것도 인제 공무원해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감정이 원칙이 극히 감정이 잘못되었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것이 참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테 그것을 ... 필적으로 몰아부치고 내가 다 놓아도 요것은 인자 업무부서에 봐줄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있단 말이여 그니까 ... 그것을 다 셋어놓고 이쪽에서 주장을 ... 과학수사연구소서 다 해야돼 그런 것을... 자네가 감정을 했는데 사실이 이렇게 않나 ...

-끝-

자료 마-1-10 (공판기록 2771~2787) 증제27의 10

진술조서

- ①성명 안재국(安載國)
- ②주민등록번호 520404 - 1006111
- ③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3-2 (571-2966)
- ④본적 서울 중구 신당동 47-4
- ⑤직업 인쇄업 직장 274-3135
- ⑥연령 40세 1952. 4. 4생

피의자 김형영 등에 대한 내사 피의사건에 대하여 1992. 2.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73 소재에서 광일사진제판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등의 의뢰로 여러 건의 인장과 지문을 수지판에 떠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취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안재국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은 인쇄업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 : 86. 1.부터 인쇄소를 경영하였으므로 6년입니다.  
 문 : 주로 무슨 종류의 인쇄를 하고 있나요  
 답 : 저는 통상 일반인이 말하는 인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하기 위한 전단계인 사진을 찍어 그 필름으로 수지·동·마그네슘에 판을 제작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주로 누구를 상대로 그러한 수지판등을 떠주는가요  
 답 : 주로 인쇄업자들이 고객이며 그들을 상대로 수지판을 떠줍니다.  
 문 : 인장과 지문 등에 대한 수지판도 뜰 수가 있

나요  
 답 : 네, 명암이 분명한 인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이나 인장도 물론 수지판 등을 뜰 수 있습니다.  
 문 :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인장이나 지문에 대한 수지·동판 등을 뜰 수 있는 기술은 언제부터 가능하였는가요  
 답 : 수지판은 77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약 15년전부터 하고 있었으며 그의 동판은 해방전부터 가능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수지가 아닌 동판이나 아연판, 마그네슘판도 지문이나 인장을 뜰 수가 있는가요  
 답 : 네, 물론입니다.  
 문 :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만 먹었다면 해방전부터 타인의 서류나 지문도 위조가 가능하였겠네요  
 답 : 물론입니다. 인쇄업자의 양심에 관한 문제일 뿐 마음만 먹으면 해방전부터도 타인의 지문이나 인장 등을 그대로 뜬을 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 : 수지판이나 동판 또는 마그네슘판 중에서 어느것이 더 정밀하게 뜰 수가 있는가요  
 답 : 가장 정밀한 것이 새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온 수지판입니다.  
 문 : 그러면 타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위조문서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 과정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말해보세요  
 답 : 제가 만약 검사님의 지문을 위조하여 차용증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선 검사님의 지문을 종이에 찍은 것을 제가 제판용 카메라로 찍으면 제시하여 드리는 필름에 지문이 나타납니다. 그때 인주가 묻은 불록 부분은 필름에 하얗게 나오고 골이진 부분은 까맣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수지판에 밀착을 시켜 자외선 광선을 쬐이고 ???!!) 떼어내면 까만 부분은 광선이 차단되고 흰 부분은 빛이 투과하게 되는데 그 수지가 감광성수지이므로 물속에 넣으면 광선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광선을 받지 못한 부분은 받침만 남기고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 수지판 중에서 광선이 투과된 부분만 남게 되어 지문형태가 수지판 위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다. 따라서 그 수지판을 인주를 묻혀 찍으면 마치 직접 검사님께서 지문을 찍은 것같이 되므로 차용증이 위조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이 임의 제시하는 필름 견본, 수지판 견본, 수지판을 뜨기 위한 원고 2매 등을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동판도 그러한 식으로 지문 등을 위조할 수가 있는가요

답 : 수지는 물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하나 동판은 등을 녹이는 화공약품을 써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더 걸리지만 같은 원리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문 : 진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 네, 동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라는 분으로 89년도 10월이나 11월 말경에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김형영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88. 10월경인가 11월경 초순경 오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사<sup>2</sup> 연구목적상 필요하니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하여 찾아오시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날 오후 4시경 김형영이가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 : 김형영이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답 : 사무실로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명함을 주길래 받았고 저도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좁고 복잡하여 부근 정다방에 가서 대화를 하었는데 김형영이 처음하는 말은 요즘 문서를 감정하는데 위조된 것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면 연구목적으로 쓰려고 하니 감정업무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여 제가 무엇을 협조해 드리느냐고 하였더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인쇄가 된 대봉투에서 32절지 용지를 꺼냈는데 보니까 32절지 용지 사각라인이 있고 아래 부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인쇄가 된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안에 15여개 정도의 원형 한문도장이 인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수지판에 떠달라고 하여 저는 이러한 인장은 떠드릴

2)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김형영은 자신도 과거 인장포를 해보야 안되는 것을 알지만 국가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일이니 아무 일이 없다고 하여 결국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수지판을 뜨려면 사진을 찍고 필름을 빼서 수정필름에 구멍난 것이 있으며 먹으로 때우는 등 수정을 하고 수지판에 붙여 부식시키는 시간이 9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더니 불 일을 보고 온다고 하더니만 오후 6시반경에 수지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때 지문은 수지판을 떠주지 않았는가요

답 : 그날은 지문은 없었고 인장만 15개 가량 떠주었습니다.

문 : 그러면 김형영이가 주고간 원고지나 또는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요

답 : 당시 김형영이가 수지판을 찾아갈 때 필름과 원고지를 회수하여 갔으므로 제가 수지판을 떠준 근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 : 무어이라고 하면서 필름과 원고지를 회수하여 가던가요

답 : 김형영이가 필름과 원고지를 달라고 하여 저는 국가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떠가는 것이므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 : 당시 수지판을 떠준 대금을 얼마를 받았는가요

답 : 돈을 내려고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으나 제가 국가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떠가는 것인데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수지판을 떠가라고 한적이 있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 : 그후 김형영이는 몇차례 더 수지판을 떠갔는가요

답 : 90. 3경에 또 김형영이가 전화를 하여 수지판을 또 뜰 것이 있는데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하고 공장에 왔는데 그때 역시 같은 원고지에 한문으로 된 원형인장 15개 정도를 인주로 찍었는지는 무엇으로 찍었는지 모르나 복사를 하여 가지고 와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지판에 떠주었고 역시 필름과 원고는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위 2회에 걸쳐 진술인이 수지판에 떠

준 것은 수지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요

답 : 두 가지 모두 인장을 찍거나 복사한 것을 가위로 오려 국과수 양식에 붙인 것인데 사방 약 11센티 정도로 오려 붙였으므로 수지판의 크기도 같습니다. 제가 그 크기로 종이로 오려서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이 오려서 제시하는 유색종이를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그후 또 수지판을 떠준 적이 있는가요

답 : 90. 6경 역시 김형영이가 전화를 하고 찾아와 수지판을 떠달라고 원고지를 내놓았는데 그때는 인장은 없고 지문이 15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수지판을 떠주었는데 떠준 수지판의 크기는 인장의 것과 동일합니다.

문 : 당시 지문은 복사를 한 것이던가요 아니면 인주로 찍은 것이던가요

답 :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전에 지문도 수지판에 떠본 경험이 있는가요

답 : 지문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 :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는가요

답 : 모두 자신의 엄지 검지 약지 등 10지를 찍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 그때도 필름이나 원고지는 회수하여 갔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수량이 15개 정도가 되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복사본은 인장이나 지문 모두 선명하던가요

답 : 판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선명도는 있었습니다.

문 : 수지의 종류는 진술인이 조금전 제시한 그 종류였나요

답 : 네, 3가지 모두 같은 종류의 것으로 제가 제시한 종류입니다.

문 : 그 수지는 어떻게 구입하는가요

답 :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수지만 수입대행하는 무역회사가 2군데 있는데 한성수지(279-5621 중구 오장동 소재)와 신홍수지(중구 인현동 소재 전화번호 모름) 두 군데로 알고 있으며 국산은 개발이 안되어 만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 : 그 수지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가요

답 : 수지판을 뜨는 외에 달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후 더 수지판을 떠준 적이 있는가요

답 : 네, 90년 11월경에 한번 더 수지판과 동판 그리고 액체수지판을 떠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때는 인장이었나요 지문이었나요

답 : 역시 복사를 한 지문 15개 정도였습니다.

문 : 그 지문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던가요

답 : 그것 역시 자신의 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 그것은 수지판 외에 동판과 액체수지판도 떠달라고 하던가요

답 : 네, 그날 와서 저에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지판뿐이라고 하여 제가 동판도 되고 액체수지판도 된다고 하였더니 3가지 모두 떠달라고 하여 떠주었습니다.

문 : 액체수지판은 무엇인가요

답 : 위와 같은 수지판과 같은 원리이나 그 수지판이 나오기 전에 쓰던 것으로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문 : 3가지를 모두 뜬 것을 받고나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답 : 역시 수지판이 선명도가 제일 좋다면 동판이나 액체수지판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지문의 형태로 보아 모지만 있었는가요

답 :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10개 지문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 사람의 지문이 10개인데 15개 정도 떠간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지문만 떠간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답 : 같은 모양의 것을 힘을 주어 찍은 것과 흐리게 찍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당시 인장의 이름 중에서 한자라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가요

답 : 기억이 없습니다.

문 : 2회의 인장에 대한 수지판을 뜰 때 각자 다른 사람의 인장이던가요

답 : 여러 형태의 인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각자 다른 사람의 인장일 것입니다. 만약 같은 인장을 반복



해서 찍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겠지요

문 : 위 4회의 수지판을 떼가면서 김형영이가 남긴 흔적이나 자료는 전혀 없는가요

문 : 필름과 원고지를 모두 회수하여 갔으므로 자료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 : 만약 김형영이가 진술인이 떠준 동판, 액체수지판과 수지판을 제시한다면 진술인이 해준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가요

답 : 우리나라에 약 30여군데 수지판을 뜨는 데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떼었다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떼준 형태는 기억합니다.

문 : 인장중에 김형영의 인장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 네,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 그러면 91년도에는 수지판을 떼준 적이 없나요

답 : 네,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온적은 없었고 91년 9월경에 전화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문 : 무슨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가요

답 : 곧 엠비시에서 인장 및 지문위조에 대한 방송 보도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을 한번 보라고 하였는데 엠비시에서는 저의 집에서 녹화를 해갔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집에서 녹화를 해갔다고 하니가 그러냐고 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최근 방송보도 된 이후 김형영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없는가요

답 : 네,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이세용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 실제 지문과 위와같이 수지판으로 찍은 지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요

답 : 실제 지문과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별이 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이 김형영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는가요

답 :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수지판을 뜨러올 때 국과수에 전화를 걸어 김형영이라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문 : 동판의 크기나 액체수지판의 크기도 위 견본

과 같았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위와같이 김형영에게 떼준 수지판 등은 대금 얼마나 정도 되는가요

답 : 일반인이 거래한다면 1회에 1만 5천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문 : 김형영이 수지판 업계를 잘 아는가요

답 :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영이 처음 수지판을 떼가고나서 몇일 후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적이 생각나는데 그때 그는 수지판 업자들의 모임이 있느냐고 물어 약 25명이 매월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반경에 정기모임을 갖는다고 하였더니 그는 자신이 국과수의 문서책임자로서 그 모임에 나가 문서위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여 제가 90년 2월 모임에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모두 모이기로 하였으나 저녁 6시반경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갑사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문 : 그 날짜를 정확히 아는가요

답 : 90. 2. 12. 오후 6시반경입니다.

문 : 진술인은 위와같이 김형영에게 수지판을 떼준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91. 12. 10. 오후 3시경 서울시경창청 특수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저녁 8시경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문 : 그곳에서 누구에게 무슨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 체대장이라는 사람에게 그동안 지문 수지판을 떼준 사람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 그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실장과 기타 지문 등의 수지판을 떼준 사람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습니

다. 문 : 그러면 김형영 외에도 지문 수지판을 떼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방송보도 이후 91. 12. 9.경 약 40세 가량의 남자가 신분증에 이도인쇄를 넣는다고 하면서 백지에 9개 정도의 지문을 복사하여 와서 떼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가 회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자체내의 신분증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지판을 떼주게

된 것이며 그의 모르는 사람에게 지문을 떼준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수사 도중에 특이상황은 없었는가요

답 : 지금 조사의 내용같이 수지판이 어떻게 떼지는 것인지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특이상황은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엠비시기자로부터 몇회의 인터뷰를 하였는가요

답 : 2회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는데 저를 인터뷰한 사람은 엠비시에 홍순관기자였습니다.

문 : 홍순관기자는 평소 아는 사람인가

답 : 아닙니다.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와서 본 것이 처음입니다.

문 : 처음 인터뷰를 한 일시가 언제인가

답 : 텔레비전 방영을 되었는지 인터뷰는 9. 18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당시 취재내용은 무엇이었던가요

답 : 주로 인쇄기술적인 문제로서 어떻게 남의 인장이나 지문이 똑같이 위조될 수가 있는지 그 과정을 취재하고 촬영을 하여 갔습니다. 나중에 저의 모임에서 들은 말이지만 당시 홍순관기자는 다른 곳에 취재를 하였는데 전화를 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여 저의 공장에서 취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두번째 취재는 언제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시경특수대에서 조사를 받은 바로 몇일 후인 91. 12. 13.경에 다시 홍순관기자가 취재를 나와 김형영과의 관계, 그를 알게 된 경위, 그에게 인장 및 지문의 수지판을 떼준 사실 등에 대하여 취재를 해갔습니다.

문 : 얼마동안 취재를 하였나요

답 : 약 30분 정도 되었고 촬영도 하였습니

다. 문 : 당시 진술인은 김형영을 89. 12. 초순경 찾아와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진술과 약간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그때는 즉석 답변을 하느라고 89. 12. 초순경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진술한 바와 같이 10월 말경이나 11월 초가 맞습니다.

문 : 취재시에는 91. 10. 말까지 1-5회 왔다고 하였

3)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는데 작년에는 온 사실이 없다고 하였지요

답 : 작년에는 김형영이가 오지 않았으므로 90. 10. 월말 또는 11월 초까지 4회 온 것이 맞습니다.

문 : 취재시에는 처음에는 도장만 떼갔고 두번째부터는 도장과 지문을 각 7-10개씩 떼가 도합 지문이 40-50개 도장 50 내지 60개를 떼갔다고 하였는데 금일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 금일 제가 진술한 사실과 처음과 2번째는 인장만 15개 정도, 나중은 지문만 15개 정도 2회씩 떼간 것이 맞으며 취재시에는 홍순관기자와 실경을 하면서 답변하였기 때문에 대충 답변한 것입니다.

문 : 도장이나 지문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던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인장이나 지문이 나란히 정렬되어 찍혀거나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문 : 조금 전에는 32절지 원고지라고 진술하였는데 취재시에는 16절지라고 하였나

답 : 보통 복사지나 갱지크기이므로 그것이 16절지가 맞습니다. 조금전 32절지라고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문 : 김형영이가 수지판을 보관하고 있다면 몇개를 보관하고 있는가요

답 : 인장 수지판 15개씩 찍힌 것을 두개, 지문 15개씩 찍힌 것 2개 등 4개와 동판 1개, 액체수지판 1개 등 도합 6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상표범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로 각 벌금을 수행받은 사실이 있나

답 : 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답 : 상표범위반죄는 88년도에 남대문 거래처에서 가방인가에 부치는 상표를 도안해 와서 동판에 떼준 사실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상표가 외국상표이어서 그 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고, 건축법은 89년도에 현재 공장옆 땅을 사서 개축하는 바람에 벌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문 : 참고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지문이나 인장 정도 위조할 만한 수지기계는 약 30만원 정도이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타인의 인장이나 지문이 그런



식으로 위조된다면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되며 저의 수지업자들은 대부분이 근거 없이 지문이나 인장을 떠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안재국

1992 2 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권영석

검찰주사(보) 안경환

☐자료 마-1-11 (공판기록 2788) 증제27의 11-1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손기호

제목 수사보고

본건과 관련 이귀덕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전라북도 경찰국장이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에 있는 감정서 부분철에서 별지와 같이 사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필적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부. 끝.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찰주사보 김광우

☐자료 마-1-12 (공판기록 2789) 증제27의 11-2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 이화삼23110-8483

시행일자 : 90. 8. 10.

기안책임자 : 김형영

수신 : 전라북도 검찰국장

참조 : 수사과장

발신명의 : 소장

제목 : 필적감정의뢰 회보

1. 수사23110-9113(1990. 7. 23)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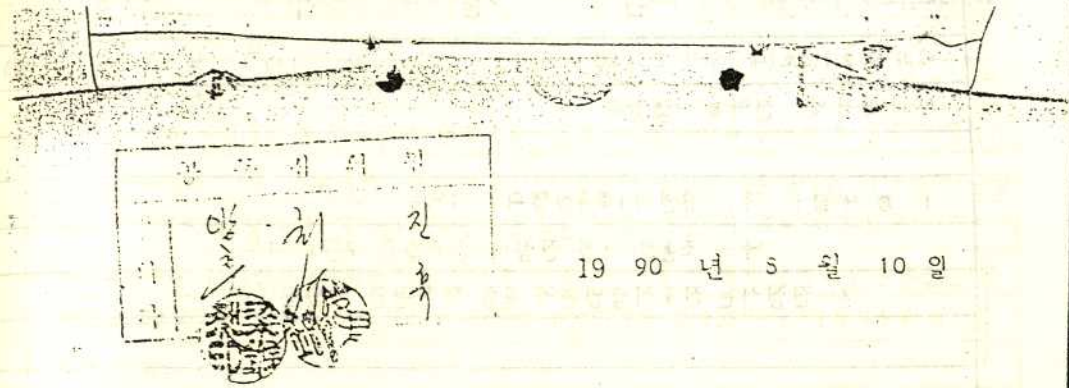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부 : 감정서 1부.

사진 22매.

증거물, 유언서 1매. 끝.

☐자료 마-1-13 (공판기록 2790~2814) 증제27의 11-3



#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3과

문서감정실

의뢰관서명 : 전라북도 경찰국



# 감 정 서

이화상 23110호(대 수사 23110 - 9113) 호 1990년 7월 23일

의뢰관서명: 전라북도경찰국

1. 증거물: 가. 유언서(조종섭명) 1매.

나. 조종섭 자필 진정서(진주법원 보관) 1부.

\* 진정서는 전주지방법원에 출장 인지촬영 하였음. [이 하 이 면]

2. 감정사항: 유언서에 기재된 필적과 진정서에 기재된 필적의 이동여부.

3. 감정방법: 현미경, 확대부리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부리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運筆)순서와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부분과 종필(終筆)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속련과 비속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장저습성 등을 주시검사 하였음. [이 하 이 면]

4. 감정소견: 위의 방법에 의한 현상정밀검사에서 조종섭명의 유언서본 정상적으로 기재된 필적이 아니고, 변화점이 많은 필적으로서 인상을 얻으며, 진정서(진주지방법원)에 기재된 필적은 인상이 있는 안정된 필적으로서, 각 필적은 첨부된 사진의 주선 표시와 같은 운필구상과 필획간의 연결부분, 종필양태등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등사본의 복선표시와 같이 필의 순서, 필의 방향 및 유언안 운필양태등에서는 차이점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양태가 기재연도차이에서 오는 변화상태인지 또는 비정상적인 양태에서 기재하는 과정상의 변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유언서 자체내에서도 인상을 얻는 변화점이 많으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유언나 모방이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음. [이 하 이 면]

첨 부 사 진 22매(가령, 부사, 사진은 보기불편하여 임의로 선정함)

5.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유언서 필적과 진정서 필적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고, 유언서 자체내에서도 변화점이 많아서 이동신빙 불응임. [이 하 이 면]

19 90년 8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 경








(사건) (호)

유연서

주권아금양동 412

주 권 양

상: 유연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진정서 발송봉투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연서

나의 모든 재산  
주인 할아버지와 동생  
김하영 형제관계야



유연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차이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실학 3. 2)

16  
 17  
 18  
 19  
 20

최남에게 물여  
 상공의 교수를 물려  
 상공의 나라를 회관다

상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언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藍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차이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2  
 3  
 4  
 5  
 6  
 7  
 8  
 9  
 10

최남에게 물려  
 상공의 나라를 회관다  
 상공의 나라를 회관다

상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언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藍線표시는 각증거물필적과 차이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2월 8일 조영민  
 연구실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KWANGJU, KOREA  
 조영민  
 연구실

유연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線線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광주 고등법원  
 법원장 박희하  
 부  
 재판장 지음  
 광주광역시 역전동 1가 11 27 6 외 7 (법원지구)  
 820  
 무선전화  
 광주광역시 역전동 1가 11 27 6 외 7 (법원지구)  
 820  
 무선전화

진정서 발송봉투 필적 부분 확대사진.

프기상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광주 고등법원

법원장님께

진정서



진정서 발송봉투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성부분

綠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편 1996년 5월경 양  
도청 고차에 걸쳐  
집이 없는 점 등하여  
(추락) 문명가를 하여  
기여 수일후 귀향후  
사유를 하도 양호  
귀하 시인 바 양호  
귀하 시인 바 양호

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성부분

綠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線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의 아...가  
 ...하고 피...  
 ...의 자...  
 ...은 ...가...  
 ...아...기...  
 ...의 목적...  
 ...구...도...  
 ...있...고...  
 ...기...를...  
 ...억...증...  
 ...해...보...

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綠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이...  
 ...이...  
 ...이...  
 ...에...  
 ...을...  
 ...이...  
 ...는...  
 ...하...  
 ...자...  
 ...구...  
 ...식...

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유사점부분  
 綠線표시는 각종거물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건번호 17호)

이 일기는 1997년  
 이 일기를 통하여  
 내세 1997년 1월 10일  
 상하내에 있는 자  
 물대 금 115,000원  
 을 버리고 청구인이  
 하여 대석도 까지 가  
 서 또한 자살을  
 하였음  
 이와같이 말씀드린  
 복나와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928

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증거물 필적과 유사성부분

○표시는 각증거물 필적과 차이점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일기는 1997년  
 이 일기를 통하여  
 내세 1997년 1월 10일  
 상하내에 있는 자  
 물대 금 115,000원  
 을 버리고 청구인이  
 하여 대석도 까지 가  
 서 또한 자살을  
 하였음  
 이와같이 말씀드린  
 복나와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표기생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9월 13. 4일 밤 9시  
 편지  
 친구인 이 피청구인의  
 기쁨 속에서의 피청구인  
 언을 후처 갖기 에 사슴  
 살수 없으니 이혼 하자  
 갖을 너야. 그리하여 여가  
 두고 이혼 할수 있게 하  
 린것은 형사기록에 전  
 그리고 본건 재판부에  
 처는 청구인은 피청구

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표기생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달이 원의 사비 하강  
 을 3. 4의 사유이 이혼  
 이 원의 원들에서 생략하  
 기 제를 원의 화결의 서를  
 을 취하 하인 지기기- 생략  
 불이 해 하의 것은 무효가  
 니가- (각의 내용)  
 받음 드리 았을 니 다인  
 원의 바래 면 기 제판  
 관하  
 9월 10일

전정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표기생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 마-1-14 (공판기록 2815~2848) 증제27의 12

피의자 신문 조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인환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손기호는 검찰주사(보) 전연규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이인환(李仁桓), 연령은 44세, 생년월일 1947. 3. 3. 생, 직업은 인장 및 감정업, 직장전화번호는 [redacted], 본적은 [redacted], 주거는 [redacted], 자택전화번호는 [redacted]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와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가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80. 6.경 부평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로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병역관계 등을 진술하시오.

답 : 저의 학력으로는 1966. 2. 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저의 경력사항으로는 위와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 3.경부터 1968. 9.경까지 울지도에 있는 흥문사 인장 필경부에서 글로 쓰고 도장도 짚으며, 1968. 10.경부터 1973. 8.경까지는 은평구 대저동의 저의 집에서 인장업을 자영하였으며, 1973. 8.경부터 1974. 6.경까지는 병역을 필하였고, 1974. 11.경부터 1976. 12.경까지 세종로에 있는 영인당의 인장부에서 도장파는 일을 하였으며, 1977. 6.경부터 1981. 1.

1.경까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담당(4급)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위 국과수를 그만두고 1979. 11. 26.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인장공예기능사 1급을 취득하였고, 1988. 3.경부터 1992. 2. 현재까지 중구 태평로에 있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서 감정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의 가족관계로는 처 정을남(42세, 역술가) 모 김춘자(64세, 무직) 자 권혜정(15세, 중2) 자 이원(14세 중2) 자 이송희(12세 국졸) 등과 위 주거지에서 살고 있으며, 저의 재산상태로는 동산으로는 200만원이 있으며 부동산으로는 저의 처 명의로 된 단독주택(시가 2억 상당)이 있으며, 저의 병역관계로는 병역법 제1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부선망 독자로 6개월짜리 방위소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몰유가족이나 원호대상자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상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가요.

답 : 담배는 하루에 갑판 정도를 피며 술은 소주 2홉들이 3병 정도를 마십니다.

문 : 피의자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답 : 다른 곳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심장이 약한 편입니다.

문 : 피의자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답 : 어렸을 적부터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었는가요.

답 : 1977. 6.경부터 1981. 1. 1.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담당(4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어떻게 하여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가요.

답 : 저는 그 당시 신찬석 밑에서 영인당에서 인장부에서 조각을 하였는데(겸해서 인영필적감정도 함) 하루는 신찬석이가 서울신문 광고에 난 국과수의 문서감정요원을 선발한다는 광고문을 주면서 저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여서 응시를 하여 합격이 되어 위 국과수에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단순히 신찬석으로부터 시험보라는 권유를 받아 응시하였던 말인가요.

답 : 신찬석이가 저에게 간단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국과수에 추천하여 줄터니 면접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합격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 이 당시 김형영이란 사람도 같이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가요.

답 : 김형영은 그 당시 내무부열 중소기업은행 맞은 편에 있는 성신기업이란 곳에서 인장업을 자영하였는데 이 사람도 저와 함께 국과수에 추천을 하여 주어 같이 위 국과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위 김형영이도 위 신찬석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피의자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저에게 신찬석이가 '김형영과 함께 국과수에 추천을 하여 주었으니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틀림없다'고 하여서 저와 김형영이가 추천을 받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81. 1. 1.경 위 국과수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어떻게 추천을 받고 들어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왜 그만두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이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80. 11.경 어떤 사람의 인영을 감정해 주었는데 그 감정결과에 불만이 있던 사람이 서울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았고, 또 치안본부 특수대에서도 조사를 받아 치안본부에서 저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국과수에 통보하여 직권면직되어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당시 피의자가 조사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위 인영을 감정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하였는지, 그래서 그 부탁대로 감정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인영감정을 잘못하였다고 조사를 받을 당시 김형영이도 같이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조사를 받았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위 김형영이는 어떤 내용때문에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 김형영이가 조사를 받은 것을 기억해보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땅을 38필지로 나누어 각 38명에게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팔았는데 그중에서 2개의 매도증서를 가지고와 그곳에 적힌 매도인의 인장이 같은 인장인지의 여부를 감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같은 인장이라고 김형영이 감정결과를 내자 그것에 불복한 사람이 사실은 다른 인장인데 같은 인장으로 감정하였다고 진정을 하여 위 김형영이가 조사를 받다 그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김형영이가 감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감정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위와같이 김형영이가 허위감정을 하여 구속이 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당시 땅을 팔았던 사람의 매도증서 9통에 대한 인장의 진위여부를 감정해달라는 통보를 받아 제가 감정한 결과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모두 동일인장으로 판명되어 제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 결국 저의 위와같은 통보로 김형영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다시 국과수에 복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국과수를 그만두고서도 위 김형영과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가끔 만나서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니다. 그리고 김형영이 인판업연합회 회보에 글을 써서 보내곤 하였습니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사설감정인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소송관계로 감정을 의뢰받은 일이 있을 텐데 감정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답 : 감정에는 국과수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설감



정소에서 하는 감정이 있는데 먼저 국과수에서의 감정은 경찰, 검찰, 형사지법(민사지법은 제외)에서 감정의뢰를 해오면 국과수에서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며 민사지법이나 개인은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과수에서의 감정절차는 감정담당이 정해지면 감정을 하여 그 감정결과서를 작성한 후 문서실 감정인 전원이 회람식으로 돌아가면서 감정서를 검토한 다음, 오자 탈자 여부와 감정목적물의 인영상의 특징상태가 동일한지 상이한지 필적이면 필적의 특징상태가 동일한지 상이한지 판단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조란에 협조씨인을 하고 계, 과장,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송처리됩니다.

사실감정소에서의 감정은 개인, 경찰, 검찰, 형사지법, 민사지법 등에서 감정의뢰를 해오면 감정인 1인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을 아는가요

답 : 네, 알고 있습니다.

문 : 위 이세용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제가 서소문에 있는 한국빌딩 301호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이란 상호로 신찬석과 같이 인장 및 감정업을 하고 있었는데 1988. 7.경 신찬석씨가 양종석이라는 사람이 필적감정을 해달라고 하였다며 저에게 감정을 하여 달라고 하여 그것을 보니까 이세용이라는 사람이 자기앞수표 뒷면에 이서를 하여 돈을 찾았던 적이 있고, 또한 은행에 예금을 찾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니 그것에 쓰인 이세용의 필적과 이세용이 쓴 자술서에 나온 이세용의 글자가 동일필적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것이어서 이때 이세용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으나 제가 이세용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은 1989. 4.경 이세용이 저의 감정원으로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달라고 하여서 정동에 있는 정동교회 앞 어떤 다방에서 이세용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89. 여름경 이세용으로부터 형사소송 항소심에 있을 문서감정을 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 2백만원을 국과수 김형영실장에게 전

달해달라고 하여 저는 그 2백만원을 받아서 김형영에게 전달한 것 뿐입니다.

문 :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답 : 89. 여름 1500경 이세용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진다방에서 이세용을 만나 이세용의 형사소송 항소심에 있을 문서감정에 대하여 감정을 잘해달라면서 국과수 김형영실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1만원권 2백만원을 받아, 바로 김형영실장에게 연락을 하여 그날 2000경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2백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세용이 그의 형사소송 항소심에 있을 문서감정에 대하여 '감정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 2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정을 잘해주는 것인가요

답 : 이세용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대로 감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세용이가 어떤 내용대로 감정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요

답 : 먼저 이세용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먼저 개인감정을 하여 그 내용을 김형영에게 전달을 하여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위 2백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주며 피의자는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요

답 : 일단 제가 이세용이가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먼저 감정을 하고 제가 그 내용을 김형영에게 이야기하여 주며 그 내용과 부합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88. 6. 16.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자기앞수표 후면에 이서된 필적 및 예금청구서와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과 이세용의 자술서와 탁상일기장에 기재된 필적과의 이동성 여부에 대하여 저는 서로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를 내렸는데 김형영에게 판단하여 가급적이면 이에 부합되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래서 위 김형영은 피의자로부터 2백만원 받고 어떤 감정결과를 내렸는가요

답 : 저는 돈 2백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는 알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같이 이세용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아 다 김형영에게 전달하였으면 피의자는 아무 이득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요

답 : 저는 신의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김형영에게 도움을 주려고 전액 다 주었고 그 돈에서 같이 술을 마셨으며, 저는 개인 감정으로 해준 댓가로 별도로 감정료조로 이세용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귀덕이란 사람을 아는가요

답 : 네, 알고 있습니다.

문 :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이귀덕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고 유서문제가 대두되어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남편 조종섭의 유서에 기재된 필적과 진술서 서면의 필적결과의 이동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문제로 들락거려 알게 된 여자인데 위 양 두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제가 알기로 이 감정에 대해서는 신찬석이가 그 이귀덕의 요구대로 두 필적이 서로 달라 결국 조종섭의 유서가 아니라고 감정을 내렸는데 이귀덕이 이 내용대로 국과수에서 그대로 하여 달라고 저에게 청탁을 하여 90. 여름 1500경 서소문동에 있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민사소송판례로 위와 같이 유리하게 감정해달라는 취지로 김형영실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30만원을 쥐서 이를 받아가지고 바로 김형영에게 연락을 한 그날 ???경4)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현찰 30만원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문 :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어떤 결과로 감정을 하여 주었는가요

답 : 유서에 기재된 조종섭의 필적과 진술서 서면의 조종섭 필적과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감정결과를 해주어 이귀덕이에게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이때에도 피의자는 돈 30만원을 전액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의자는 아무런 이득도 없었는가요

4)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답 : 위 돈 30만원을 전달해주면서 그 돈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이 여러 차례 있다면 다소간의 이득을 남기고 전달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어서 그 돈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돈에서 얼마의 돈을 떼고서 김형영에게 전달해 주었으면서 처벌이 두려워 김형영에게 모든 것을 되집어줘우려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한편으로는 이득이 생기는 일도 아니면서 부탁을 하면 마지 못해 김형영에게 전달해주어 결과적으로 김형영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문 : 피의자는 양승호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 네, 알고 있습니다.

문 :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양승호는 90. 여름부터 감정문제로 제가 근무하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자주 들락거려 알게 된 사이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양승호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여 건네준 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아닙니다. 제가 양승호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찬석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양승호건으로 건내주라고 하여 90. 9. 중순 ??:00경5)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신찬석으로부터 돈 70만원을 받아서 바로 김형영에게 연락을 하여 그 70만원을 홍은동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전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돈을 건네준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양승호가 1988.경 신찬석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신찬석이 감정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감정에는 관여한 일이 없으나 양승호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1990. 여름에서 가을 사이로 생각되는데 그때쯤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하였습니다. 제가 양승호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감정내용이 혼히 있는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이 아니고 문서의 빈란에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써넣었는지 아

5)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년지를 감정하는 문제로서 변조되었다고 주장되는 부분과 원래부터 있었던 문서내용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 문서 뒷장의 필흔에 대하여 감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하고 복잡한 감정내용이었기에 때문입니다. 양승호가 자기는 그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인이 자기를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국과수에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감정을 다시 받거나 할 수가 없느냐, 법원에서 국과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실조회를 해주도록 직원에게 부탁해줄 수 없느냐고 신찬석에게 말을 하여 신찬석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1990. 9. 초순경 양승호로부터 국과수 사실조회 관계로 직원에게 잘 부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 100만원을 주어 받아가지고는 저에게 위와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국과수 김형영실장을 만나 부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였는데, 신찬석이 양승호에게서 받은 돈 10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떼고는 70만원을 저에게 주면서 부탁하는 경비로 김형영실장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저는 그 돈을 받아서 후 김형에게 전화를 하여 김형영의 집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나 기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 그날 20:00경 흥은동 유진상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김형영에게 법원에서 양승호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한 것에 대하여 유리하게 회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돈 70만원을 건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사실조회 결과는 어떠하였나요

답 : 사실조회 결과는 양승호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문 : 김형영이 돈을 받고도 청탁내용과 다르게 사실조회를 해주었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청탁내용과 다르게 사실조회를 해주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답 : 제가 반드시 사실조회를 유리하게 해야한다고 부탁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잘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고, 또 국과수의 감정이 전혀 감정

내용과 다른 결과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서는 어느정도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었다면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인데 그건은 자신의 재량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감정결과대로 사실조회를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돈을 준 이후 양승호가 피의자의 사무실에 언제 또 찾아왔는가요

답 : 1990. 연말이 조금되기 전에 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 :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답 : 사실조회 결과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김형영이 증언까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여 자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자기가 준 돈을 반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다.

문 : 피의자는 1989. 여름경에 이세용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김형영에게 감정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세용의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감정은 1989. 12. 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여 같은 달 15. 김형영이 감정서를 회시하였는데, 피의자의 말에 따르면 법원에서 감정의뢰가 자기 몇달전에 벌써 돈을 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 제 기억에 의하면 이세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더운 여름으로 분명히 기억되고 이세용이 항소심에서도 국과수에서 감정이 있을 것인데 그에 비하여 미리 국과수 김형영실장에게 돈을 주어 법원에서 감정의뢰가 가면 그때 감정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여 달라면서 돈을 저에게 주어 그 돈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법원의 감정의뢰일보다 몇달 앞서 돈이 건너가게 된 것일 뿐이고 틀림없이 이세용의 항소심재판과 관련하여 그 부탁으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1990. 여름에 이귀덕에게 돈 30만원을 받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돈을 건네준 시기는 김형영이 감정의뢰를 받기 전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답 : 김형영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로 출장 감

정을 갔는데, 출장을 갔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제가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때는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 김형영이 전주에 출장가서 감정을 한 것은 1990. 7. 23. 전북도경의 감정의뢰에 의한 것인데, 그 감정서는 같은 해 8. 10. 작성되었으므로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그 사이의 하루가 되는데 그런가요

답 : 네. 시기적으로 그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문 : 피의자는 그의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있나요

답 :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사실 제가 양승호에게 신찬석씨가 돈 100만원을 받아 70만원을 준적이 있고 그외에는 없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의 2번에 걸쳐 돈을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 : 그런데, 왜 앞에서는 한번밖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나요

답 : 제가 잠깐 더 속여볼려고 하였는데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어차피 신찬석씨가 사실대로 모두 말할 것 같아 제가 계속 한번만 돈을 받았다고 우긴다면 저에게도 좋지 않고 더욱 나쁘게 보일 것 같아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1990. 12. 4경 20:00경 김형영의 집이 있는 흥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입니다.

문 : 돈을 건네준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네, 처음 양승호 사건으로 신찬석에게 돈을 건네받아 위 김형영에게 돈을 주면서 양승호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면 잘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그 부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김형영이 증언하였는데 증언도 양승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 법원에 재감정을 의뢰하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1990. 11. 하순경 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이때 양승호는 신찬석에게 양승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감정

을 의뢰하면 유리한 감정을 다시 김형영이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후 12. 3. 양승호가 신찬석의 우체국 예금통장으로 2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신찬석이 12. 4. 15:00경 사무실에서 그 돈중에서 140만원을 주면서 위와같은 부탁을 김형영실장에게 하고 돈을 주라고 이야기하여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후 그날(그러니까 제가 돈을 김형영에게 건네준 날) 즉시 김형영에게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그날 저녁 김형영의 집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약속시간에 그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양승호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감정을 법원에 의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법원에서 재감정 의뢰가 가면 양승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는 신찬석에게서 받은 140만원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문 : 위 돈은 현금으로 주었나요

답 : 네. 현금 1만원권 140매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었습니다.

문 : 또 한번 더 돈을 건네준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1990. 12. 6. 20:00경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부근 호프집에서입니다.

문 : 돈을 건네준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네. 12. 4에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주고 난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신찬석씨가 양승호에게 전화를 하더니만 엇그제 준 돈으로는 양승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주는 댓가로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승호가 그 뜻에 따라 돈을 200만원을 다시 신찬석의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12. 6. 15:00경 사무실에서 신찬석은 그 돈중에서 역시 140만원을 저에게 주고는 전번과 같은 취지로 김형영에게 재차 유리하게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저는 알았다고 한후 그 건네주는 돈을 받고 김형영에게 전화를 하여 역시 전번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후 돈을 받은 그날 흥은동 유진상가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재감정에 대한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부탁을 하고는 현금으로 그 140만원을 김형영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문 : 돈이 부족하다고 김형영이 말하던가요



답 : 김형영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신찬석 씨가 스스로 판단하여 돈을 더 보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문 : 양승호는 그 돈을 왜 보냈나요.

답 : 저희에게 돈을 주어 국과수에 아는 직원에게 손을 써서 재감정에 대한 유리한 감정을 받아주게끔 부탁하는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양승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주도록 부탁하면서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주자 돈을 받은 김형영은 어떻게 하던가요.

답 : 제가 돈을 건네주자 김형영은 잘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

문 : 그뒤 양승호는 재감정을 법원에 의뢰하였나요.

답 : 네, 의뢰하였습니다.

문 : 의뢰를 받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 : 법원에서 재감정의뢰를 받은 후 국과수에 재감정의뢰를 할려고 하였으나 그러기 전에 저와 신찬석 씨가 필혼감정을 다시 해본 바 재감정을 하였다 하여도 도저히 불가능함을 발견하여 양승호에게 재감정을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법원에 먼저 가서 재감정 의뢰한 것을 보류하여라고 권고하여 이 말을 들은 양승호가 수긍하고 나서 법원에 가보류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뒤 국과수에서도 재감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 재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미리 김형영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 한번 준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도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양승호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

문 : 피의자는 앞서 진술시 사실조회 건으로 김형영에게 돈을 준 후 사실조회도 유리하게 되지 않았고, 또 김형영이 법원에서 증언할 때 양승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자 양승호가 1990. 연말쯤 찾아와 불평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준 이후 다시 두번에 걸쳐 돈을 더준 적이 있는데 양승호가 찾아와 불평을 한 것은 위 재감정까지도 불만이 되어 찾아온 것인가.

답 :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거짓말을 하다보니 사실조회 관계건으로 잘못되어

연말쯤 왔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중간에 와서 재감정문제로 돈을 주어 국과수 직원에 부탁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감정 문제도 보류가 되자 양승호는 저의 사무실에 들리지 않다가 1991. 12. 20경쯤 찾아와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리고, 피의자는 이세용의 항소심 사건으로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줄 때 자기앞수표 후면에 이서된 필적 및 예금청구서와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과 이세용의 자술서와 탁상일기장에 기재된 필적과의 이동성 여부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국과수에 의뢰된 것은 임봉규가 조병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보증각서의 필적감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이세용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이세용이 자기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서 재류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다시 문서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할 것이니 미리 김형영실장에게 부탁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감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던 것이다. 저는 당시 이세용이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하자 어떤 문서에 대한 감정인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소심에서의 문서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다만, 1심에서 감정을 하였으니 같은 감정을 의뢰하여 졌지 하는 마음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인데 제가 잘못알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세용에게서 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고, 돈을 받은 명목은 이세용의 항소심 사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감정이 나오게끔 국과수 김형영실장에게 부탁하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 : 피의자는 김형영에게 돈을 전달할 때 모두 현금으로만 주었나요.

답 : 네, 모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문 : 현금으로만 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저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돈을 줄 때 김형영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던가요.

답 : 저의 부탁에 대하여 잘 살펴보겠다고 이야기 할 뿐 달리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

문 : 피의자는 김형영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가 모두 생백주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김형영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건네주면서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생백주집에서 건네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데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답 : 그 생백주집은 조명이 어둡침침한 편이고 또 제법 넓은 업소인데 손님이 비교적 없는 시간에 만나 돈을 건네주었고 그 돈은 항상 큰 편지봉투에 넣어 새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또한 저와 김형영이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 본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백주집에서 백주도 한 잔 하면서 돈을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양승호 사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김형영에게 돈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조회건으로 주었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재감정 또는 재사실조회를 대비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볼 때 김형영 자신이 사실조회하였던 사항에 관하여 설사 그 반대되는 내용의 재감정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을 건네준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데 돈을 건네준 것이 진실인가.

답 : 그것은 제가 김형영에게 처음에 해주었던 사실조회와 반대되는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사건의 감정내용이 필혼감정이라는 특수한 내용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양승호의 주장대로의 감정도 가능할 것 같아 김형영에게 가능하면 처음 김형영이 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험용 보관증 재감정을 함에 있어 양승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인데 김형영이 그러면 일단 한번 재감정의뢰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잘 살펴 보겠다고 하여 돈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문 : 실험용 보관증 재감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답 : 양승호의 사건은 양승호가 강태호라는 사람에게 이음을 맡기면서 어음보관증을 한장 받고 또 양승호는 강태호에게 보관증확인서를 한장 해주었는데, 보관증과 보관증확인서를 양면패지 용지에 앞장에 보관

증을 쓰고 그 뒷장에 보관증확인서를 쓴 관계로 보관증에 필기구로 눌러쓴 흔적이 뒷장에도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태호는 어음보관증 내용증 자신에게 불리한 문구가 나중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양승호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관증 확인서의 필혼을 사실감정소에서 감정하니 원래 있었던 어음 보관증의 문구 부분은 보관증확인서에도 그 필혼이 나타나 있는데 나중에 가필된 문구 부분은 보관증 확인서에 그 필혼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결국 필혼이 나타나지 않는 그 문구는 나중에 양승호가 가필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양승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관증의 사본을 강태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관증 사본을 이용하여 강태호가 소지하고 있던 보관증확인서 앞에도 대고 나중에 가필 변조되었다는 문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구를 필기구로 글씨체를 따라 눌러써서 보관증확인서에 그와같은 필혼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처음부터 모든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강태호가 꺾을 내어 교묘한 방법으로 마치 변조된 것처럼 일부 문구의 필혼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자신을 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 양승호의 주장대로 강태호가 그와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문구를 필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관증 사본을 몇장 하여 그 보관증 사본을 몇 사람이 가지고 실제로 필기도구로 일부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구를 눌러???6) 뒷장을 다시 감정의뢰하여 필혼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지를 재감정하자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보기에 그것이 가능했던가요.

답 : 저는 처음에는 양승호가 본인이 쓴 것을 본인이 그 그자를 따라 눌러쓰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양승호의 주장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감정을 김형영에게 잘 좀 감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재판때 양승호와 만나 서란다방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승호의 말로는 세 사람이 각각 어떤 글귀를 종이에 적은 뒤에 그 종이를 각자 서로 바꾸어 다른 사람이 쓴 글씨 위를 필기

6)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구를 따라 눌러써서 필흔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는 실험을 한다고 하여 그때 저는 그런 식으로는 양승호의 주장대로 필흔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자기 글도 따라쓰기가 어려운 데 남의 글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 다른 방법으로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원래 신청하였던 재감정은 보류하던가 하라고 말하여 주고 그날 실험용 재감정을 위해 같이 가기로 한 저와 신찬석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법원에 가지를 앉고 법원앞에 있는 서란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승호가 법원에 갔다가 온다고 하면서 간뒤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를 않아 저희들은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그런 재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양승호에게 말하여 주었는데 양승호가 실험용 재감정에 대비하여 국과수에 전해달라고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답 : 양승호는 그날 법원에 들어간 뒤 저의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있다가 신찬석이 증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인 1991. 6경에야 비로서 신찬석을 찾는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제가 신 선생님을 증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있다고 말해주었더니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전화를 끊고 그 뒤로는 통 연락이 없다가 1991. 말경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 재판에서 실험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문 : 그때 양승호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답 : 양승호가 신찬석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고 신찬석이 어디에 있는냐고 물어 제가 신찬석은 몸이 안좋아 시골로 내려갔는데 아직은 연락처를 모른다, 연락처를 아는데로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더니 양승호는 돌아가고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또 김형영에게 감정과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엠비시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감정업계에서 국과수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허위감정을 받는 것에 관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의자도

이외에 돈을 더 건네준 일이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처음에는 검찰청에 와서 김형영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돈을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처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누를 끼칠까봐 돈을 준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검사님 앞에서 신찬석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저와 신찬석이 단들이 이야기를 한 결과 일부 신찬석이 먼저 말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더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처음에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국과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처음 검찰청에서 이틀동안 조사를 보도를 보도를 접하고 본바 국민들이 국과수의 감정문제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국과수의 감정 자체를 불신하는 소리가 드높아 저도 꼼꼼히 생각을 하여보니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국과수를 살리는 길은 저의 잘못을 누우치고 국민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오히려 무조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실추된 국과수의 명예와 권위를 다시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까지 제대로 다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으로부터 자기의 항소심 사건에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외에 이세용에게서 돈을 더 받은 일이 있는가요

답 : 그외에 이런 부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저가 감정해준 것에 대한 감정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세용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은 몇건이나 되는가요

답 : 이세용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건은 2건입니다.

문 : 어떠한 감정의뢰를 받았나요

답 : 첫번째 감정의뢰건은 조서말미에 기재된 조병

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적힌 필적과 인증이 된 조병길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각서상의 조병길 이름에 대한 필적의 이동성 여부에 대한 감정 및 두번째 건은 합의각서 등에 날인된 인영 등과 합의각서에 기재된 성명 필적 등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동성 여부를 감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첫번째 감정의뢰를 받은 것은 언제쯤인가요

답 : 1989. 4경쯤으로 기억됩니다.

문 : 감정의뢰를 받은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1988. 7경 양종석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던 신찬석씨에게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신찬석씨가 그것을 저에게 감정을 하도록 하여 서류를 건네주어 보니 이세용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은행예금청구서 및 자기앞수표 뒷면 이세용이 쓴 이세용 명의의 필적 및 이세용이 쓴 자술서상의 이세용 명의의 필적이 동일필적인지를 감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그때서야 처음 이세용의 이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 4경쯤 이세용이 직접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감정을 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만날 것을 약속한 후 약속장소인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교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만나 처음 이세용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 이야기한 것은 이세용이 어떤 서류를 내놓고는 감정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감정의뢰였습니다. 그때 이세용은 감정의뢰 서류 복사본 3장을 내놓으면서 저만 감정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뢰를 하여 감정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사람 정도의 감정서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서너사람 정도 감정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후 이세용에게 감정료가 15만원인데 감정할 것이 추가가 되니 5만원을 더 계산하여 20만원이 들고 또 두 사람의 감정을 더 받으려면 모두 합하여 60만원이 드니 감정료를 달라하여 그 즉시 만났던 다방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감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두 사람 더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면, 피의자는 누구누구에게 같은 건을 감정하도록 하였나요

답 : 저와 같이 일하고 있던 신찬석씨와 당시 불광동에서 감정업을 하고 있던 저와 잘 알고 지내는 김춘두란 사람에게 해주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

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세용에게서 받은 감정료를 각 20만원씩 주었습니다.

문 : 이세용은 피의자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여 감정을 해주도록 의뢰하였나요

답 : 저희는 평소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또 전에 저가 이세용의 감정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세용에게 어떻게 하여 알고 전화를 하여 감정의뢰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웃으면서 아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 : 이세용의 감정에 대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 : 제가 감정을 해본 결과 동일필적으로 판명되어 동일필적이라고 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문 : 신찬석이나 김춘두의 감정결과는 어떠하였나요

답 : 역시 저와 같이 동일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 이세용이 감정을 왜 한다고 하던가요

답 : 저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세용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사에 따라 감정만 해주었습니다.

문 : 이세용이 감정하는 이유를 말하여 주지는 않던가요

답 : 제가 묻지도 않자 감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만, 서류를 주면서 감정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감정하는 이유를 전혀 몰랐단 말인가요

답 : 네. 전혀 몰랐습니다.

문 : 위 감정서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이후에 알게 되었나요

답 : 그 이후에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 : 이세용이 감정의뢰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하지는 않던가요

답 :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 그뒤 또 이세용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것은 언제쯤인가요

답 : 1991. 12 초경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여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덕수궁 옆에 있는 건 다방에 만나 감정의뢰를 받았습니니다.

문 : 당시 감정료로는 얼마를 받았나요

답 : 한꺼번에 8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니다.

문 : 감정료를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당시 감정대상물이 많았고, 그리고 감정의뢰 사항도 네 가지나 되어 보통 그 정도의 감정에 있어서 1건당 20만원씩 4건 80만원을 받은 것은 그리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현재 심경이 어떤가요

답 :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가고 신문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저는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던 중에 검찰청에서 소환을 하여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과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오히려 국과수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부인하여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한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움도 커서 제 자신은 위해서도 빨리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제가 이야기하기를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말이 있는가요

답 : 김형영에게 먼저 미안함은 느끼지만 일이 이와 이렇게 되어 저 혼자 김형영을 감싸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번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건이어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맹세드립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인환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손기호

검찰주사(보) 전연규

☐자료 마-1-15 (공판기록 2849~2857) 증제27의 13

진술 조서

- ①성명 고원배
- ②주민등록번호 : [redacted]
- ③주거 서울 [redacted]
- ④본적 인천시 [redacted]
- ⑤직업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원장 전호 [redacted]
- ⑥생년월일 62세 1929. 4. 3 생

피의자 이인환 등에 대한 뇌물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주소지에서 딸 고숙희, 고미숙과 함께 살면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1-2 소재 태양빌딩 401호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경영하고 있는 고원배입니다.

1. 저와 친구인 신찬석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소재 한국빌딩 302호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1988. 10.경부터 경영하다가 그가 1991. 1. 9.자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위 감정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2. 15.자로 인수하여 제가 원장이 되고 감정업무 및 인장 조각업무는 직원인 이인환 함께 하면서 경영하였습니다.

1. 위 신찬석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편을 못 쓰게 되는 풍에 걸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소재의 시골 마을에서 요양중에 있는데 1992. 1. 18. 11:00경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그를 만났는데 필적감정과 수지판

도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코저 합니다.

검사는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고원배인가요

답 : 저가 고원배입니다.

문 : 진술인은 감정원을 하는가요

답 : 1991. 2. 15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1-2 소재 태양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란 상호의 감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감정사 자격이 있나요

답 : 문서인 인영과 필적의 감정사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개인 스스로 감정사 간판을 걸고 감정업무를 하는 것이지 달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영필적의 경험과 학식은 없으나 직원인 이인환이 감정업무를 하고 저는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경영하는 감정원의 구성과 규모, 업무는 어떠한가요

답 : 제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원장으로 경영을 하고, 감정인으로는 이인환이 인영과 필적의 감정업무를 하면서 인장 조각업무를 담당하고, 인장조각 1급 기능사 김춘두가 조수인 오세연을 데리고 인장조각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의 딸인 고미숙이 경리와 사무실 전화받는 일 등을 하며, 사무실 규모는 14명이 되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신찬석, 이인환, 이송운, 김형영을 어떻게 아는가요

답 : 신찬석은 1969. 9.경 저가 "사회단체 한국인장 조각협회"의 초대 회장일을 보면서 1970년 초경부터 그가 "사단법인 전국인판업연합회" 초대 부회장을 보게 되어 알게 된 친구이며, 이송운은 1970년도경에 위 전국인판업연합회 이사를 보고 있어 알게 되었고, 중구 서소문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을 경영하는 자이고, 이인환은 1982년도경에 이송운이 경영하는 한국문서감정원 직원으로 인장조각을 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고, 김형영은 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그가 1975년도경에 서울 중구

울지로 2가 소재에서 '문화당'이란 상호의 인장업을 하면서 전국인판업연합회 이사로 근무하여 알게 된 관계입니다.

문 : 진술인은 위 신찬석으로부터 최근에 필적감정서와 수지판 도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가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1992. 1. 20. 13:00경 전북 남원군 운봉면 번지불상 소재에서 신찬석의 집에서입니다.

문 : 부탁받은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 신찬석의 집 방에서 그가 자세한 주소, 성명은 현재 기억이 없는데 백지에 불펜을 사용하여 주소와 성명을 여러차례 기재한 시필문건 2매를 제시하면서 상호 필적의 동일여부 감정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줄 것과,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복사용지 1매를 제시하면서 수지판 도장을 만들어 복사된 차용증의 원본을 만들어다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문 :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친구 신찬석이 1988. 1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소재 한국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경영하다 1991. 1. 9. 서초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풍이 발병되어 사무실 운영을 못하자 제가 인수하여 1991. 2. 15부터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다가 1991. 8.경에 사무실 위치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1-2 소재 태양빌딩 401호 사무실로 이용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1992. 1. 16. 11:00경 신찬석씨가 같은 감정원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이란 상호로 하는 이송운이 신찬석과 상호 감정이 좋지 않는데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신찬석에게 구정이 다 되어가니 떡값이나 보내야 되겠다면서 신찬석의 전화와 예금통장구좌번호를 물어와 알려주고 나서 1992. 1. 18. 11:00경에 남원에 있는 신찬석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그가 사용하던 면허증, 사업자등록증등을 남원으로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0. 08:00경 서울역에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남원의 신찬석에게 찾아갔더니 그의 방안에서 저와 단둘이 있는데 큰 봉투안에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와 볼펜으로 여러 차례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시  
필문건 2매를 제시하면서 필적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서를 그의 명의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서  
울에서도 감정을 하는데 20만원이면 되는데 왜 시골  
구석에서 100만원씩이나 주고 감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서 다그치니 자기의 친구  
가 체신부에 공중전화 박스부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가 라디오와 전기밥솥도 사주는 등 도움  
을 주는데 그가 감정을 부탁한다고 하여 아무래도 이  
상하여 너가 지금 합정에 빠진 것 같으니 터놓고 사  
실대로 말해보라고 하면서 혹시 한국감정원원장인 이  
송운으로부터 보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송운이  
부탁했다면서 다시 성명과 도장이 날인된 복사용지 1  
매를 제시하면서 수지판 도장을 만들어 그 원본을 작  
성해달라는 조로 부탁을 하여 저가 너말야 형무소 갈  
려고 환장을 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걸 부탁하려고  
남원까지 내려와달라고 한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한  
국감정원원장 이송운의 합정에 빠졌으니 받은 돈을  
즉시 부탁한 사람에게 반환할 것을 충고하니 신찬석  
이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사과하고 차비조로 금 2만원  
을 저에게 주어 약 1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부탁받은  
것을 모두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와버린 사실이 있습  
니다.

문 : 이진 부탁으로 수지판 도장을 신찬석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진술인이 전부터 수지판 도장을 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답 : 예, 2차례 신찬석의 부탁을 받고 수지판 도장  
을 만들어다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지판 도장을 신찬석에  
게 만들어 주었던가요.

답 : 오래되어 이름은 기억이 없는데 1990. 10.경  
과 같은해 11월경에 2차례 신찬석의 부탁으로 서울  
중구 삼각동 소재 조흥은행 본점 뒤편에 있는 수지도  
장 만드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수지판 도장을 만  
들어다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문 : 감정서를 만드는데 왜 수지판 도장이 필요한  
가요.

답 : 차용증서 등 서류에 당사자(작성권자)가 인장  
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동일한 인장이 날인

되어 서류 등이 위조되었다고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서류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을 촬영하여  
수지판 인장을 똑같은 기존의 인장 모형으로 만들어  
서류를 위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을 감정하여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수지판 인장이 감정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신찬석이 수지판 도장을 사용하여  
언제, 어떠한 감정을 하는데 사용했는지를 아는지요.

답 :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문 : 진술인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하면서 진술  
인 명의로 감정서를 적성 발급했던 일이 있는지요.

답 : 저는 문서 인영필적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  
기 때문에 감정서를 발행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실장  
인 김형영을 감정서류 관계로 부탁을 했거나 만났던  
일이 있는지요.

답 : 저는 감정을 하는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  
정서류 관계로 그를 만나거나 부탁한 일이 전혀 없습  
니다.

문 : 진술인은 조병길, 이세용을 아는지요.

답 :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조병길은 이번에 남원  
에 내려가 신찬석에게 감정을 사실과 달리 많은 금원  
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부탁했던 사람이라고 이송운  
과 신찬석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르  
로 간인한 후 무인케 하다.

진술자 고 원 배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완수

검사주사(보) 정창호

자료 마-1-16 (공판기록 2858~2877) 증제27의 14

진술조서

①성명 신찬석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 서울

④본적 서울

⑤직업 무직

⑥연령 63세 1928. 10. 11생

피의자 이인환 등에 대한 제3차 뇌물교부등 피의사  
건에 관하여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여 일정한 직업없이 지  
내고 있습니다.

1. 저는 1988. 10.경부터 1991. 1.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소재 한국빌딩 302호의 중앙  
인영필적감정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의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습  
니다.

1. 저는 양승호 등 수명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영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에게 공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교부받은 다음 이인환을 통하여 저가 직접 위 김형  
영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위 내용에 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진술하겠  
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신찬석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경영한 사실  
이 있는지요.

답 : 예, 1988. 10. 일자불상경부터 1991. 1. 8.경까  
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소재 한국빌딩 302  
호의 위 감정원의 원장으로서 위 감정원을 경영한 사

실이 있습니다.

문 : 위 감정원의 당시 직원은 누구였는지요.

답 : 제가 원장이었고 감정인으로서 이인환이 있었  
고 전국인판업협회 회보의 편집인인 고원배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저의 사무실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문 : 위 이인환은 진술인이 고용하여 급료를 지급  
하고 있었는지요.

답 : 위 이인환은 자기를 찾아오는 개인적인 의뢰  
인의 의뢰문서 등을 감정해주고 감정비를 받아 자신  
이 소유하다가 제가 바쁠 시에는 저의 업무를 도와주  
는 정도이었으므로 제가 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  
은 없었으며 위 고원배는 제가 가끔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 정도를 주는 처지였습니다.

문 : 당시 위 감정원을 운영하면서 진술인은 매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지요.

답 : 약 6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문 : 취급업무는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답 : 각종 문서에 기재된 필적, 편출된 인영의 상  
이, 동일여부, 작성연도 등에 대하여 감정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문 : 감정료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요.

답 : 문서 1건에 대하여 연도감정은 약 40만원, 그  
외의 감정은 20만원을 받았으며 감정문서의 건수의  
양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감정료를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감정원을 운영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1991. 1. 9.경 제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다음 요양을 하였고 때문에 위 감정  
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문 : 현재는 누가 위 감정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요.

답 : 위 감정원은 현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의  
2 소재 태양빌딩 4층에 소재하고 있고 위 고원배가  
원장이고 위 이인환이 감정인으로서 위 감정원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문 : 서울 시내에 진술인처럼 위 감정원을 경영하였  
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 : 이익주가 신성필적감정원, 한용택이 서울인영



필적감정원, 이송운이 한국인영필적감정원, 전진풍이 한신인영필적감정원, 인장업연합회에서 감정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실장 김형영 등을 아는가요.

답 : 위 문서감정실장인 김형영은 1970년경 인장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인장업연합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연합회의 업무관계로 알게 되었고 1974년경 위 연구소의 위 문서감정실장이던 이익주가 사임을 하게 되어 당시 위 연구소의 소장이 저에게 위 실장직에 적합한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위 김형영을 소개해주어 더욱 깊은 인연을 맺은 사이이며 그외에도 위 감정실의 직원인 최섭, 양후열 등도 전에 인장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문서의 필적 등의 감정의뢰인들로부터 위 필적 등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위 실장인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술인 자신이나 직접 또는 타인에게 그 전달받은 금원을 교부하여 그 타인을 통해 위 김형영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4회에 걸쳐 금 385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에게 뇌물을 김형영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이귀덕, 양승호입니다.

문 : 이귀덕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뇌물을 진술인이 교부받은 일시, 장소, 그 금액 등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1990. 7. 3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소재 한국빌딩 302호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제가 이귀덕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뇌물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1989. 11. 3.경 전주시 덕진동 664의 18에 거주하는 이귀덕이라는 여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조종섭의 유서에 기재된 '조종섭'이라는 필적과 조종섭이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조종섭'이라는 필적의 이동여부, 유서에 현출된 '조종섭', '조종수'의 인영의 조각기법상의 이동여부를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유언서 사본에 기재된 '조

종섭'의 필적과 전주경찰서 조서사본상의 '조종섭'이라는 필적은 상호 상이하고 유언서 사본의 조종섭 이름 우단에 날인된 조종섭의 인영과 그 하단에 조종수의 이름 우단에 날인된 조종수의 인영은 동일인이 조각한 동일기법의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7.경 이귀덕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귀덕이 제가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전북도경에 조종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그 사건과 수사하는 도중에 위 유언장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전북도경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귀덕이 1990. 7. 하순 일자불상경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유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연구소의 직원들이 전주로 출장을 와 감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언제쯤 위 직원들이 전주로 출장을 오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하여 김형영에게 전화를 하여 출장감정 일시를 알아보니 자기가 같은 해 8. 2.경 출장감정을 하러 간다고 하므로 그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이귀덕에게 전달을 하였다니 그녀가 같은 해 7. 31.경 저의 사무실로 올라와 돈 50만원(10만원권 자기 앞수표 3매, 현금 20만원)을 저에게 내놓으면서 여비조로 그 돈을 김형영에게 전주로 내려오는 여비라고 하면서 전달하고 그에게 위 유언서의 감정에 대하여 그녀에게 유리하게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하므로 제가 이를 승락한 다음 그녀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작성한 감정서부분을 가져왔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에 위 감정서 부분을 제출하므로 이를 사본하여 본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 : 진술인이 이귀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형식상 명목은 출장여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금원을 김형영에게 교부하고 그에게 위 이귀덕에게 유리하게 위 유언서에 대하여 감정을 해달라는 명목이라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귀덕의 요청에 따라 김형영에게 부탁을 하였는가요.

답 : 예, 1990. 7. 31.경 저의 사무실에서 이귀덕이 있는 자리에서 김형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귀덕이 전

주로 출장가는데 필요한 여비 5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 돈으로 여비에 충당하고 출장을 가 감정을 하게 되면 그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 : 이귀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는가요.

답 : 예, 50만원 전액을 전달한 것은 아니고 35만원을 1990. 8. 1.경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에 개설된 김형영의 계좌(37907-02-214201)로 그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문 : 이것이 진술인이 김형영에게 금 35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인가요.

답 : 이때 검사는 현재 고원배가 원장으로 있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서 찾아낸 무통장입금증 사본 1매를 제시하고 확인하게 한 다음 이를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50만원 전액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35만원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와 김형영이 상의하여 그 중 15만원은 제가 소비하기로 하여 35만원만 김형영에게 송금한 것입니다.

문 : 김형영에게 직접 전달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좌로 송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위와 같이 제가 김형영에게 부탁을 하면서 위 금원을 전달할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위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을 해 준 것입니다.

문 : 이귀덕은 진술인이 위 금 50만원 중 35만원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그녀는 제가 김형영에게 50만원전액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저와 김형영 사이에 상의를 하여 감정과 관련하여 소개를 해주면 30%를 저에게 주기 때문에 제가 15만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문 : 위 계좌번호는 평소 진술인과 김형영간에 감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거래를 하던 것이 아니었는가요.

답 : 그것은 아니고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김형영이 가르쳐 주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조병길과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 진술인이 김형영의 계좌번호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던데 평소 거대한 계좌가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혹시 진술인과 김형영간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어 채무변제조로 위 금 35만원을 송금한 것은 아닌가요.

답 : 그와 금전소비대차관계로 돈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금원은 이귀덕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감정을 해달라는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문 : 그후 위 금 35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의 부탁과 함께 위 금 3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김형영이 이귀덕에게 유리한 감정을 하였는가요.

답 : 제가 1990. 8. 8.경 김형영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귀덕이 원하는대로 감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양승호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할 금원을 줄테니 그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첫번째는 1990.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한국빌딩 302호의 저의 사무실이고 두번째는 같은 해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저의 사무실입니다.

문 : 첫번째로 부탁을 받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제가 1988. 11. 2.경 양승호로부터 강태호 명의의 어음보관증 기재사항 품평란에서부터 발행인 동명가구 임필레 및 상기와 여히 정희 보관함 필적과 임필레의 이름 옆에 "위 어음을 차용받는 조건으로...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에 대한 작성연도와 이동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988. 11. 10.경 위 문서개재내용은 '동시에 작성되었고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을 하였으나 강태호가 양승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검찰청에 고소를 하자 검찰에서 위 보관증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혼 및 동시 동일 필기구 연속작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9. 10. 19.경 김형영



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가침부분에 필흔이 나타나지 않고 아울러 가침부분이 일시미상경 변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오게되어 양승호는 1990. 1. 31.경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 동행사적로 불구속기소되었고, 위 공판계속 중 위 법원에서 위 김형영에게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곧 사실조회를 하려고 하자 양승호가 저에게 금 100만원을 줄테니 이를 김형영에게 전달하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할 때 양승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한 금원을 교부 받았는가요

답 : 예,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 교부받은 금액을 진술하시오

답 : 1990.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한국빌딩 302호의 저의 사무실에서 금 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김형영에게 전달을 하고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직접 김형영에게 부탁을 하면서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이인환에게 하고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금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문 : 이인환에게 부탁을 한 일시, 장소, 교부한 금액을 진술하시오

답 : 제가 양승호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과 함께 김형영에게 전달할 금원을 교부받은 당일 저의 위 사무실에서 위 이인환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김형영에게 전달한 금 7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양승호로부터 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인환에게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며 금 70만원밖에 교부해 주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이진과 같이 제가 중간에 들어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30%의 소개비를 받으므로 금 30만원 을 공제하고 금 70만원만 이인환에게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금 30만원을 차지 한다는 사실을 양승호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양승호는 제가 소개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 100만원 전액이 김형영에게

전달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이인환이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금 70만원을 전달하였는가요

답 : 예, 그 무렵 저의 사무실에서 제가 이인환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김형영에게 위 금 70만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본결과 이인환은 제가 그에게 금 70만원을 주던 바로 그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부근의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제가 말한 부탁의 내용을 전하면서 위 금 70만원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문 : 이인환이 소개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금 70만원을 그대로 김형영에게 전달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이인환과 김형영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이인환은 저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김형영에게 전달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 김형영이 위와같이 금 70만원을 받고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에 따라 양승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가요

답 : 저는 유리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지 아니하여 알지 못합니다.

문 : 진술인은 양승호로부터 진술인이나 김형영이 감정인으로서 위 법원에 출석할 경우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양승호가 사실조회 회신상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며 위 금 100만원을 저에게 주어 제가 이인환을 통해 금 7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을 하고 나서 많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양승호가 저에게 위 금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저나 김형영이 감정인으로 위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관련 부탁은 이진 금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문 : 두번째로 양승호로부터 부탁을 받은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0. 11. 하순 일자불상경 저의 위 사무실입니다.

문 :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 양승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보관증에 대하여 재감정신청을 하거나 재사실조회를 할 예정인데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김형영에게 전달할 사례비를 줄테니 그에게 부탁을 하여 재감정에 대하여는 감정불능으로 결과가 나오게 하고, 재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양승호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금원을 교부받은 일시, 장소, 금액을 진술하시오

답 : 1990. 12. 3.경 양승호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빌딩 본관 우체국에 개설된 저의 계좌(번호 012548-006447-17)로 금 200만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4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직접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위 금원을 전달하였는가요

답 : 저는 이인환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김형영에게 전달할 금원을 주었고, 이인환이 다시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금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이인환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김형영에게 전달해 달라는 금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 금액 등을 진술하시오

답 : 1990. 12. 4. 17:00경 저의 위 사무실에서 이인환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며 금 140만원을, 같은 달 6. 17:00경 저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금 140만원을 각 교부하는 등 합계 금 2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문 : 이인환에게 양승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 280만원만 교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소개비 금 120만원을 공제하여 이를 제가 차지한 것입니다.

문 : 양승호도 진술인이 소개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양승호는 위 금원 전액을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며 저에게 준 것이므로 제가 일부를 소개비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 : 이인환은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위 금 28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 저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각 일자의 20:00경에 위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그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8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형영이나 진술인이 위 법원에 감정인으로 출석하여 양승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저와 김형영이 감정인으로서 위 법원에 각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것은 위와같이 2회에 걸쳐 제가 합계 금 400만원을 교부받기 전이므로 증언과 관련하여 제가 위 금원을 교부받을 수는 없었으며, 증언과 관련하여 제가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저도 증언이기 때문에 김형영과 제가 위 금원을 절반씩 차지하였을 것이지 김형영에게 더 많은 돈을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 : 김형영이 재감정에서 감정불능이라고 통보하거나 재사실조회 회신상 양승호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 없었습니다.

문 :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를 법원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승호가 진술인에게 이미 제공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직접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가 1991. 1. 9.경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양승호가 저의 사무실에 들러 저를 찾은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이인환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으며 그후 제가 시골로 거처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



답 : 예, 제가 감정업무가 바빠 최섭에게 저의 이름으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가 감정을 해주었기에 고마운 마음에 사례비로 1990. 7. 30경 한국주택은행 서소문지점의 최섭의 계좌(번호 457002-88-802361)로 금 15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나 김형영이 이귀덕, 양승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위해 허위 감정을 해준 것은 아닌가요

답 : 양승호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이미 감정을 하고 난 다음이므로 허위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귀덕건도 이귀덕이 유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철저히 감정을 하여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1991. 1. 중순과 하순에 조병길을 남원 운봉에서 만나 대화를 하면서 '88년에 이세용의 구속건으로 이송운이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때 국과수에 금 800만원을 주었다. 이송운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는데 150만원을 감정비용으로 받았다고 해달라고 이송운이 부탁을 하여 그랬다고 이세용에게 말했다. 국과수에 부탁을 하려면 우선 국과수가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서류위조를 한 다음에 보내야 한다. 위조방법은 평소 글씨를 쓰는 습성을 알아야 된다. 김형영은 전에 허위감정이 문제가 되어 혼이 난 사실이 있으므로 공식거래비는 500만원이고 사건에 따라서 1장(1,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다. 전주에 사는 아주머니가 남편의 유서문제로 시동생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5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왔길래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의 김형영계좌로 송금을 해주었고 그 수표가 도난수표로서 문제가 생겨 형사가 찾아왔을 때 기억에 없다고 하여 무마되었다. 김실장이 주도자이고 최섭이나 누가 감정담당자가 되어도 나 할 수 있다. 2, 3건 이인환을 통하여 김형영이 해준 것은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 진실한 것인가요

답 : 이세용건과 관련된 금 800만원에 대하여는 당시 감정업계에 그러한 소문이 있어 마치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된 것이고, 이송운으로부터 이세용과 관련된 문서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비로 정당하게 제가 35만원, 이인환이 8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허위감정을 국과수로 받을 때 500만원이 든다고 한 것은 이송운이 농담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어 조병길이 문서를 위조한 다음 국과수로부터 허위감정을 받아달라고 하므로 제가 당시 몸이 불편하여 돈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므로 조병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그와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된 것이고, 전주 사는 아주머니건은 이귀덕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가 입원해 있을 당시 사무실로 형사들이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을 제가 마치 무마한 것처럼 주장하여 말을 한 것이며, 김실장이 주도자라고 한것은 국과수 직원들이 감정과 관련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감정업계에 있었고 저도 김형영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으며 그가 문서감정 실장이므로 주도자라고 한 것입니다. 조병길과의 대화 내용은 일부 풍문을 과장하거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대장을 보면 양승호와 이귀덕의 관련건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술인이 경영하던 위 감정원에서 임의제출로 받은 위 대장중 이귀덕 등에 대한 부분과 진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본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다.

진술자 신 찬 석

1992. 2. 15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이 완 수

검찰주사(보) 정 창 호

中央印刷影跡鑑定院

鑑定書

Form with stamps and handwritten text, including a date stamp '1989 年 11 月 11 日'.

Large form with multiple sections for identification, including a date '1989 年 11 月 11 日' and handwritten notes.







위의 조서문 진순자에게 일 만 화...  
진순한데 오기나 중감 변경한 것이 권위...  
다고 말함으로 간인한후 서명 날 인계 하라

진순자 조 동 영

서기 1970년 8월 20일

권수경 찬서

사법경찰관

경정 황 소 준

사법경찰관

원경 김 경 용

진순보서인영부서

위의 조서문 진순자에게 일 만 화...  
진순한데 오기나 중감 변경한 것이 권위...  
다고 말함으로 간인한후 서명 날 인계 하라

진순자 조 동 영

서기 1970년 12월 1일

권수경 찬서

사법경찰관

경정 황 소 준

사법경찰관

경

진순보서인영부서

22



중대...  
중대...  
중대...

中央警察廳鑑定院

(大正・昭和・日統・日帝)

1980년 12월 1일  
권수경 찬서

부인

나의 모친 재산은 유산에...  
권한 여동생들의 공중금...  
1980년 12월 1일

A collection of handwritten notes, stamps, and a circular seal impression. Includes a rectangular stamp with Chinese characters and a circular seal impression.



|                       |                       |                       |
|-----------------------|-----------------------|-----------------------|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 한 데 로                 | 오 기 나                 | 중 감                   |
| 없 다 고                 | 말 하 모 로               | 간 인 환 후               |
| 인 하 다                 |                       | 시 명                   |
|                       | 권 술 자 조 종             |                       |
|                       | 1979. 6. 13.          |                       |
|                       | 권 주 지 방 검 관 청         |                       |
|                       | 김 사                   |                       |
|                       | 김 관 주 사 (보) 최 우       |                       |

|                       |                       |                       |
|-----------------------|-----------------------|-----------------------|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 한 데 로                 | 오 기 나                 | 중 감                   |
| 없 다 고                 | 말 하 모 로               | 간 인 환 후               |
| 인 하 다                 |                       | 시 명                   |
|                       | 권 술 자 조 종             |                       |
|                       | 1979. 6. 13.          |                       |
|                       | 권 주 지 방 검 관 청         |                       |
|                       | 김 사                   |                       |
|                       | 김 관 주 사 (보) 최 우       |                       |

|                       |                       |                       |
|-----------------------|-----------------------|-----------------------|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 한 데 로                 | 오 기 나                 | 중 감                   |
| 없 다 고                 | 말 하 모 로               | 간 인 환 후               |
| 인 하 다                 |                       | 시 명                   |
|                       | 권 술 자 조 종             |                       |
|                       | 1978. 1. 18.          |                       |
|                       | 권 주 지 방 검 관 청         |                       |
|                       | 김 사                   |                       |
|                       | 김 관 주 사 (보) 김 인 기     |                       |

|                       |                       |                       |
|-----------------------|-----------------------|-----------------------|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위 의 조 서 를 전 송 받 아 예 게 |
| 한 데 로                 | 오 기 나                 | 중 감                   |
| 없 다 고                 | 말 하 모 로               | 간 인 환 후               |
| 인 하 다                 |                       | 시 명                   |
|                       | 권 술 자 조 종             |                       |
|                       | 1979. 6. 13.          |                       |
|                       | 권 주 지 방 검 관 청         |                       |
|                       | 김 사                   |                       |
|                       | 김 관 주 사 (보) 김 인 기     |                       |



☐자료 마-1-18 (공판기록 2892~2900)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 조서

성명 이송운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제3자 뇌물수교부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공성국(은) 검찰주사 윤시균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이송운(李松雲)

연령은 65세, 생년월일 1926. 12. 18. 생.

직업은 감정업(한국문서감정원장)

직장 전화번호는

본적은 서울

주거는 서울

서울

자택 전화번호는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76. 10. 19. 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 7만원을 선고(폭력행위처벌법 위반)받고, 1991. 9. 20. 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허위감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위 주민등록지에 처 이종녀 58세 타자 인쇄업, 딸 이지연 23세 대학 4년이 살고 있고, 저는 위 주거지에서 본처와는 약 7년전부터 별거하여 현재는 합순기 36세와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재산 정도 및 생활상태 등은 어떠한

가요

답 : 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고, 월수입은 감정업무로 하여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나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면 약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경력, 병력, 종교관계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예, 학력은 1945년도에 중국 봉천서인중학교 6년 과정을 졸업하였고, 병력은 1950. 1. 5. 육군 예비역사관학교에 입교(육사 전신)하여 6개월 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되어 1951. 7. 경 군사정보문서실에 배치되어 문서작성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54. 4. 경 육군 소위로 전역하였으며, 경력은 1965. 10. 경부터 을지로, 무교동 등지에서 인쇄 및 필적 등 문서감정업을 하여 왔으며 1970. 10. 에 전국인관업연합회 이사겸 감정원장으로 피선되었고, 1971. 5. 경부터 한국문서감정원이라는 상호로 감정업을 하다가 1981. 3. 경부터 중구 태평로 2가에서 현재까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문 :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신체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 : 위계양이 조금 있고,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운영하는 한국문서감정원의 소재지, 인원구성 및 하는 업무는 어떠한가요

답 : 소재지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30번지 소재 유흥빌딩 204호에 있고, 사무실은 12평에 저와 여직원 한 사람 있고, 업무는 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필적, 인영, 지문, 문서 등의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하여 주고, 개인적으로도 감정의뢰받아 감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문서실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답 : 관련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통상 국과수로 칭함)에서는 문서실이 있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 사건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처리하지만 저희들은 법원·검찰 및 수사기관이나 일반인들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감정하여 주고 있는

데 국과수에서는 감정인이 3명이 있고, 감정업무는 저희들과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이세용, 양종석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동인들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되도록 국과수의 담당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던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위 이세용, 양종석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았던 일시, 장소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예, 1988. 6. 10. 경 위 저의 사무실에 찾아온 양종석으로부터 이세용이 자기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데 동인이 공갈사건 피의자로 구속되어 재판 계류중인데 동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증거로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감정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이세용관련 사건은 어떠한 것이던가요

답 : 사건은 이세용이 임봉규에게 공갈로 돈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검찰에 구속되어 재판 계류중인데 이세용이 받았던 돈중에서 수표에 배서된 필적이 이세용의 필적이라는 것으로서 구속되었는데 대조물로 감정하여 이세용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의뢰를 한 것입니다.

문 : 감정인은 누구이었나요

답 : 예, 양종석이 여러 사람을 감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저를 포함하여 같은 감정인으로 신찬석, 이인환과 같이 감정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문 : 감정료는 얼마로 약정하였나요

답 : 예, 감정료는 한 사람당 80만원씩인 2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감정료는 양종석이 감정의뢰할 때에 감정료는 미리 주어서 받았습시다.

문 : 그러면 피의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돈을 갖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일시, 장소 및 금액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예, 1988. 8. 22. 조흥은행 덕수지점에 개설된 저의 조흥은행 통장 온라인으로 양종석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았고, 동년 9. 22. 에 같은 지점 통장으로 금 250만원을 받아 모두 45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 : 위 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답 : 그 중 50만원은 이인환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사용했습니다.

문 : 위 돈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1988. 6. 10. 경 이세용의 감정물건을 가져와서 와서 감정하고, 동년 6. 16. 경 감정서 3건을 찾아가고 나서 동년 8. 중순경 양종석이 위 저희 사무실에 들러 사설감정원의 감정서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에게 관계직원에게 부탁하여 감정서에 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비로는 5-6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국과수의 감정업무에 관하여 동인들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주고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기로 하였던 일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예, 1988. 6. 16. 경 위 사무실에서 감정서를 모두 찾아가고 후에 양종석이 국과수의 감정서를 받을 수 없느냐고 하여 국과수는 일반인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지를 않고 형사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저에게 국과수에도 감정신청을 할 것인데 손을 좀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얼마 정도를 주어야 되느냐고 물기에 그것은 알아서 달라고 하였더니 5-600만원 정도면 되겠느냐고 하기에 그 정도면 된다고 하여 대전에 내려가서 돈을 온라인 송금하기로 하여 저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위 돈을 받아서 국과수의 감정업무에 관련한 직원들에게 돈을 주었던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앞서 진술한 바와같이 이인환에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사용했습니다.

문 : 그러나 피의자에게 돈을 주었던 양종석 등은 피의자가 국과수의 관계직원에게 돈을 주고 감정을 부탁한 것으로 알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양종석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감정과 관련하여 국과수에 부탁을 하기는 했나요

답 : 예, 부탁은 이인환에게 접수여부와 이인환과 친한 문서실장 김형영에게도 부탁을 좀 하라고 하였는데 이인환이 갖다와서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문 :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어떻게 나왔던가요



답 : 예, 1988. 9. 하순경 결과가 회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역시 이세용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사실 이외에 국과수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돈을 갖다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맡았던 사실은 더 없는가요.

답 : 예, 그후 1980년도에 한건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진술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국과수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돈을 갖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관계인은 최고의 공신력이 인정된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도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본건에 대하여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선저를 바랍니다.

문 :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전부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 송 운

1982. 2. 15.

서울지방검찰청

김사공성국

검찰주사 윤시균

자로 마-1-19 (공판기록 2901~2920) 증제27의 17

진술조서

①성명 양승호 (梁承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서울

④본적대전시

⑤직업 건축자재생산업 직장

⑥연령 41세, 1943. 8. 6.생

피의자 김형영 등에 대한 뇌물수수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82. 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대전 소재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대양인슈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 저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중앙인영감정원 원장 신찬석에게 감정 등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돈 500만원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취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양승호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은 신찬석을 아는가요.

답 : 네, 제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감정관계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문 : 신찬석은 언제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1987. 5.경부터 전북 남원에 있는 삼진산업(주) 전무이사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강태호와 공사대금관계로 88. 9.경 사문서 변조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서감정을 하게 됨으로써 88. 11. 초순경 찾아가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 진술인은 무슨 이유로 강태호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가요.

답 : 1988. 7. 24. 삼진산업(주) 공장건설 잔대금 관계로 제가 채무담보조로 회사대리점을 경영하던 임필레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2100만원짜리를 고소인에게 보관시키면서 저는 보관증을 받고 고소인에게는 보관확인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증의 내용은 검정불편을 사용하여 한자로 상단에 '보관증', 첫행에 '품명:약속어음 1매 아1 00982641', 둘째행에 '액면 금 2,100만원정', 삼행에 '지급일 1988. 10. 7.', 네번째행에 '발행일 1988. 7. 23', 다섯째행에 '지급지 농협유성지점', 여섯째행에 '발행인 동명가구 임필

레의 어음을 차용조건으로 87가합 450호 사건의 이자 포기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증서 및 서류 전부는 무효로 하며 지급기일 5일전에 무위 반환함과 동시에 잔금 3,071,600원정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문구중에서 임필레 옆에부터 시작된 '의 어음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87가합 450 사건의 이자포기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증서 및 서류 전부는 무효로 하며' "과 동시에 잔금 3,071,600원정은 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이라는 문구는 작성 당시 없었는데 제가 추서하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제기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그 사건의 조사는 어데서 하였는가요.

답 : 서울지검에서는 삼진산업(주)가 신설동에 있어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고 그곳에서 조사를 하였었습니다.

문 : 경찰에서 조사결과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답 : 쌍방의 서류감정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었습니다.

문 : 어떠한 서류를 쌍방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감정을 하였는가요.

답 : 고소인은 고소를 하기 전인 88. 8. 25. 서울 인영감정원 원장 한용택으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증 작성시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보관증확인서를 쓴 종이위에 바치고 썼으므로 보관증의 변조부분(별지 1적색표시부분)의 필흔이 보관증확인서(별지 2)상에 나타나지 여부를 감정위하여 그 결과 필흔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제가 변조한 것이라고 하며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저는 이에 반박하여 88. 11. 10. 임위와같이 중앙인영감정원 신찬석에게 본인이 가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동일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위하여 그결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동일 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회보를 받아 제출하여 결국 동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당형 88형제 62783호 사문서 변조, 동행사 기록에서 위 별지 1 보관증, 별지 2 보관확인서를 사본하여 변조한 부분이라는 곳에 적색표시를 하고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검찰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답 : 쌍방대질은 물론 수사에 수사를 거듭한 결과 조동식검사께서 결국 88. 1. 31.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 : 무혐의 결정을 받기까지 신찬석을 만난 적이 또 있는가요.

답 : 만날 필요가 없어 감정 당시 만난 이외에 만난적이 없습니다.

문 : 그후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 저는 그후 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88. 7.경 제기 수사명령이 나왔다면 박순용 형사 3부장님으로부터 소환장이 그해 가을경 나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부장님께서 다시 위 문제의 변조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감정한 바와같이 필흔이 나오는지 또한 제가 감정한 바와같이 동시연속 필기구로 작성된 것인지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가첨부분 필흔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으며 그것으로 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 하므로 고소인이 보관확인서 원본을 밑에 놓고 보관증 사본을 위에 놓고 불펜으로 고소인이 변조를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검찰필흔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검찰에서는 88. 1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같은 내용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변조되었다는 부분의 필흔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그 부분이 일시미상 이후 변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결국 90. 1. 31. 저를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문 : 신찬석은 누구의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는가요.

답 : 아닙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개인감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저도 전화번호부를 찾아 상담을 한 다음 찾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 : 감정비는 얼마를 주었는가요.

답 : 감정규정상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15만원을 주고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 6차공판까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요.

답 : 90. 4. 12. 제1회 공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판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검사는 저의 범죄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저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연기되었고 다음 기일이 5. 10로 잡혔으나 변호사가 재판이 겹쳐 연기신청하여 5. 31. 제3회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제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여 그날은 변호사 신문으로 끝나고 검사는 고소인 강태호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저의 변호사는 부사장인 김용승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기일은 6. 21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정수가 사임하고 또한 강태호가 송달불능이 되어 재송달을 하느라고 또 재판이 연기되었고 8. 23로 5차공판이 지정되었으나 새로 선임된 이인제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연기하여 다시 5차 공판기일이 8. 30로 잡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강태호는 증인으로 나와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부사장인 김용승은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팽팽히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이인제 변호사가 6차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무슨 내용의 사실조회인가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88. 11. 3. 서울지방검찰청의 감정을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관확인서(별지 2)상에 나타나 있는 필흔이 보관서(별지1)를 작성할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보관소의 사본을 보관확인서 위에 놓고 변조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만 다시 눌러 쓰므로서 만들어낸 필흔인지를 감정의뢰인 이해관계자 한 사람의 수중에 보관서의 사본과 보관확인서의 원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보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 언제 이인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요.

답 : 90. 6. 증순경 선임하였습니다.

문 :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위와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답 : 필흔(필압)감정이 불리하게 나오므로 변호사에게 필흔을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을 하자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나가 증인신문도 하고 위와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 : 언제쯤 변호사와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요.

답 : 90. 8. 증순경 사건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난 후 신찬석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9. 초순경에 서소문 칼빌딩 건너편 신찬석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문 : 검찰조사 도중에서 감정할 때 만나고 그후 처음 찾아간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찬석을 두번째로 찾아간 것입니다.

문 : 왜 신찬석을 찾아갔는지요.

답 : 신찬석이 검찰에서 문서감정을 하였고 아무래도 문서감정계통에는 잘 알 것 같아 위와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이 올 것 같은지 물어도 불결 상의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문 : 신찬석과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형영이라는 사람 회보한 감정내용이 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인데 위와같은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회신이 올지 예측이 궁극하여 찾아왔다고 하니까 자신이 김형영씨를 잘 알고 있는데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갈때도 자신이 추천을 해주었고 5공화국에 들어서 허위감정론은 구속되었을 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을 항소하였을 때 자신들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어 무죄를 받아 복직한 사람으로 자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할 것이라고 하여 제가 그러면 그분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였더니 신찬석이 김형영에게 용돈을 좀 주자고 하여 돈을 갖다 주기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에게 김형영에게 주라고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다음날 100만원을 사무실에서 신찬석에게 주었습니다.

문 : 어떠한 돈으로 주었는지요.

답 : 10만원짜리 수표 8매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지갑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문 : 그 돈을 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월 초순경 위와같이 도와달라고 사정하니까 신찬석은 김실장과 잘 알고 있으나 모든 일이 빈손으

로 되겠느냐고 은근히 돈을 갖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뜸을 하여 제가 얼마정도 갖다드리면 되겠느냐고 하니가 노골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돈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온 후 2일후 돈을 준비하여 신찬석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건네 주면서 사실조회 공문이 법원에서 왔는지 확인좀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신찬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김실장은 공문이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았고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 신찬석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거짓말로 저에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겨 신찬석에게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 알아봐달라고 하자 다시 김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읽어 보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김실장이 내용을 알아주었는데 신찬석이는 읽는 내용을 전화로 반문하는데 보니까 변호사가 보낸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아 그때서 완전히 신찬석을 믿고 잘못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문 : 돈을 준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답 : 신찬석이 감정하는 사람이 회신을 할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냐면서 감정 회신을 기술적으로 보내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신찬석과 상의하여 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이 돈을 주었다고 하던가요.

답 : 저는 신찬석이 사실대로 김실장과 통화하여 사실조회사 내용도 읽어주고 하여 확실히 김실장과 타협한 사이로 알고 회신에 대하여는 저에게 유리한 회신이 오리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회신이 온 것을 알기 전까지는 신찬석에게 찾아가거나 전화조차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문 : 언제 회신이 온 것을 알았는지요.

답 : 6회 공판기일인 9. 27. 재판을 받고나서 이인제변호사가 사실조회 회신이 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할 수 없이 변호사는 그날 신찬석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에게 왜 돈까지 주고 부탁하였는데 저에게 불리한 회신이 왔는지 항의하지 않았는

가요.

답 : 물론 재판이 끝나고 다음 날인가 신찬석을 찾아가 김형영이가 저에게 아주 불리하게 회신을 하여 증인으로 신찬석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회신이 되었는지 항의를 하니가 분명히 돈을 건네 주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이 증언을 유리하게 서주겠다고 하여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일 김형영이가 증언을 서고 난 다음에야 비로써 검찰에서 재기수사를 담당하던 성명불상 계장이 국과수 김실장으로부터 허위문서판별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제 사건에 대하여 감정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여 그 계장의 건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번복하지를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이인제 변호사는 신찬석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다시 김형영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어떻게 하여 김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었는지요.

답 : 신찬석은 증인으로 나가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썼으므로 신찬석이 증언을 하기 바로 며칠전 신찬석을 찾아가 김실장의 사실조회 회신이 중요한데 변호사가 김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저에게 증언을 유리하게 해줄 것인지 상의하였더니 김형영이가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자기가 연락하여 저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말해주겠다고 하므로 김실장이 증언은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신찬석의 증언이 끝난 후 바로 김형영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문 : 김형영이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는지요.

답 : 네, 다음 기일인 8회 공판에 김형영이가 나와 증언을 하였습니다.

문 : 증언내용이 진술인에게 어떠한가요.

답 : 저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하여 저는 오히려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인제 변호사는 화가 나서 김형영에게 그렇다면



증인은 사본으로 조작하여 필흔(필압)을 만든 것과 원본에서 나온 필흔을 구별할 수가 있으며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나고 하자 역시 김형영이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경험측에 비추어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하여 신문을 마쳤습니다.

문 : 그 공판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이 되었는가요

답 :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과연 증인이 사본으로 조작한 필흔과 원본 필흔을 식별할 수가 있는지 실험을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그렇다면 지금 증인의 증언은 배척하느냐고 물었고 변호사가 배척보다도 실질적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시험을 하자고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상의를 하더니 18일 후인 12 10로 날짜를 잡아서 피고인인 저를 포함하여 위와같은 실험에 자신이 있을 만한 3명 불러다가 판사실에서 검사 임피회에 실험을 하여 검사와 판사만 알 수 있도록 비밀표시를 한 다음 과연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지 증인에게 의뢰하고자 결론을 도왔던 것입니다.

문 : 신찬석에게 그후 또 돈을 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김실장이 그렇게 증언을 한후 바로 신찬석에게 찾아가 도대체 김실장이 본인과 무슨 절친지 원수가 졌길래 그렇게 증언을 하느냐면서 오히려 돈을 주지않은것만 못하게 되었다고 항의하며 이번에는 김실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과연 진위의 구별을 할 수가 있는지 실험하기로 하였는데 맞추지 못한다면 공무원 생활이 끝나고 매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더니 신찬석이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그 친구가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돈을 받아먹고도 사실조회 회신은 물론 증언까지 그렇게 하였다니 꼴탕을 먹이자고 동의를 하더니만 상대편에게 먼저 돈을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며칠 후에 만났을 때 김실장을 만나보았느냐고 하였더니 그때서야 비로서 검찰직원이 교육 도중 질문을 하여 공표된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 100만원보다는 위와같이 정해진 날짜에 실험을 하는 문제

가 더 급해졌기 때문에 신찬석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뒷전으로 미룬 채 사본 위에 필흔을 만든 것과 원본 밑에 나타난 필흔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는나고 신찬석에게 물었더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하는데 필경사를 두명 구하여 연습을 시켜 놓겠다고 하여 저는 그후 계속 필경사를 구했느냐고 전화 등 연락을 하였더니 아직 못 구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정한 날짜는 다가오고 조급한 마음에 12 1경 신찬석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필경사를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일하는 이인환씨와 자신과 저와 3명에서 그날 나가서 쓰면 된다고 하면서 신찬석이는 김실장을 만나고 왔으면서 만약 김실장이 진본을 맞추지 못한다면 양승호가 목아지를 때렸다고 버르더라고 하였더니 김실장이 하는 말이 만약 감정불능으로 회보를 하면 자기는 망신을 당하지만 만약 못맞춘다면 자기가 치명상을 입게 되고 또한 맞춘다면 양승호가 실험을 살게 되는데 치명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다소 망신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서로 좋게 잘 해보자는 말을 하였다가 신찬석 자신이 설득하여 감정불능으로 나오도록 말을 해놓았으니 김실장에게 인사할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저는 돈으로 타협을 보자는 것으로 즉각하고 김실장에게 얼마를 갖다주면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우리의 은어로 밥 한상이 100만원인데 그러한 사건을 부탁하는 경우 통상 5상 정도 차려주어야 하니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이번에는말로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5상을 차려주었는데 지난 번에 일도 하지않고 이미 100만원이 김실장에게 건너간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제하고 400만원을 주면 결국 500만원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여 준비해 주겠다고 하고는 나와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월요일 아침에 돈을 준비하여 갖다줄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준 100만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하여 신찬석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준비되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가니 온라인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찬석이는 우체국 온라인 계좌인 012658-0006447

을 불러주어 그날 오후 2시반경 흑석동 우체국에서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고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 200만원을 보냈는데 나머지는 결과를 보고 더 주겠다고 하자 신찬석이는 400만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나머지 200만원을 더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전에 준돈 100만원과 송금한 400만원 모두 김형영실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는가요

답 : 물론입니다. 그러나 김형영이가 그 돈을 모두 받아 중간에 전달한 신찬석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 이인환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답 : 신찬석이가 하는 말이 이인환이도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형영이와 함께 일하다 김형영이가 구속되었다가 복직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하여 회생타로 그만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알고 있으며 항상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돈거래는 전부 신찬석이와 하였습니다.

문 : 90. 12. 10. 법원에 나가서 감정을 보낼 것을 만들었는가요

답 : 12. 9. 신찬석에게 가서 내일 나갈 수 있는나고 하였더니 시필(감정물을 만드는 작업)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습을 못하였으니 한번 연기를 하자고 하여 12. 10. 저 혼자 재판장실로 찾아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한번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차후 기일을 지정해 주겠다고 하고 나왔고 9차공판이 12. 20에 있었는데 시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공판도 연기되어 시필일자는 91. 1. 7로 잡혀졌고 1. 31로 10차공판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1. 7.에는 시필을 하였는가요

답 : 그날 시필을 하기 위하여 법원앞 정곡빌딩 동판 란다방에서 신찬석과 이인환을 만나 시필을 하러 가자고 하였더니 구체적인 시필방법을 물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다시 시필방법을 설명하였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틀리니까 연습을 더하겠다며 다음 기회로 한번 더 연기를 하자고 하여 제가 법원에서 당신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냐고 하며 일어나서 화를 내며 그럴려면 모두 때려치우자고 하면서 저 혼자 법원에 다녀올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나가

변호사에게 그러한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시필자들이 속을 썩여 못해먹겠다고 하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10분 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재판장실로 들어가보라고 하여 10분 후에 전화를 다시 하였더니 변호사가 취소가 되었으니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란다방에 가서 그들에게 모두 취소하고 끝내버렸는데 내가 약속이 있어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갈테니 그때 만나자고 하여 헤어져 12. 10.에 신찬석의 사무실에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더니 이인환이가 하는 말이 어제 신찬석씨가 증정으로 쓰러져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있는데 인사불성이라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후 가끔 사무실로 건강상태를 물어보기만 하고 신찬석이는 만나지 못하여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 : 그러면 그후 진술인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요

답 : 결국 91. 7. 3.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1992. 1. 29.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항소심에서 고소인에게 피해금을 전액 이상 변제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필감정(김형영의 판별시험)을 하기로 하였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답 : 판사가 그날 당일 시필할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3명에게 모두 겹쳐져 있는 백지에 쓰도록 한 후 원본과 필압에 의해 나온 필흔이 있는 밑의 종이를 수거하여 재판장이 3장 모두 비표시를 하고 난 후 원본을 3매를 모두 복사하여 복사한 것을 또 3사람에게 돌려주어 다시 겹쳐진 백지에 복사한 그대로 따라서 쓰도록 하여 비표시가 된 필흔과 비표시가 안된 사본의 필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가려내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문 : 참고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고소인 주장의 피해금도 전액 변제하게 되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가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선처를 바라며 신찬석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김형영은 처벌을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다

진술자 양 승 호  
1992. 2. 16.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권 영 석  
검찰주사(보) 안 경 한

☐자료 마-1-20 (공판기록 2921~2938) 증제27의 18

서울 지방 검찰청

92형제17600, 17601, 17602호 1992. 3. 5.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제목 공소장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본 적 "별지(1)와 같음"  
주 거 " "  
직 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범죄명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제3자 뇌물교부 라. 제3자 뇌물수수교부  
공소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별지(2)와 같음"  
신 병 2-6. 1992. 2. 16 (구속) 7. (불구속)  
1. 1992. 2. 17 (구속)

첨 부 : 1. 구속영장 6통.

"별 지 (1)"

1. 가. 본 적 서울 /  
주 거 서울 /  
직 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문  
서분석관(5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김 형 영 (金炯永)  
생년월일 1939. 11. 19. (당 52세)

2. 나. 다. 본 적  
주 거  
직 업 건설업(세기건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 세 용 (李世容)  
생년월일 1950. 9. 9. (당 41세)

3. 마. 본 적  
주 거  
직 업 감정업(한국문서감정원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 송 운 (李松雲)  
생년월일 1926. 12. 18. (당 65세)

4. 나. 라. 본 적  
주 거  
직 업 인장 및 감정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 인 환 (李仁桓)  
생년월일 1947. 3. 3. (당 44세)

5. 나. 다. 마. 본 적 /  
주 거 서울  
직 업 무 직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찬 석 (申 燦 碩)  
생년월일 1928. 10. 11. (당 63세)

6. 마. 본 적  
주 거 /  
직 업 건축자재 생산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양 승 호 (梁 承 鎬)  
생년월일 1948. 8. 6. (당 44세)

7. 다. 본 적  
주 거 / )  
직 업 건설업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민등록번호  
성 명 양 종 석 (梁 宗 錫)  
생년월일 54. 10. 3. (당 37세)

"별 지 (2)"

-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제37조, 제38조
- 2.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 3.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4조
- 4.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4조, 제37조, 제38조
- 5.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 6.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 7.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 소 사 실

피고인 김형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이세용은 세

기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같은 양종석은 주식회사 중앙개발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인환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근무하는 사설감정인이고, 같은 신찬석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소속 사설감정인으로 있던 자이고, 같은 이송운은 1991. 9.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허위감정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중에 있는 자로서 한국합동문서감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설감정인이고, 같은 양승호는 삼전산업주식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는자인바,

1. 피고인 이세용, 양종석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던 피고인 이세용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피고사건에 있어서 담당재판부의 감정의뢰에 따라 감정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사건 증거물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가 유·무죄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이세용이 같은 양종석에게 지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담당직원에게 청탁, 위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8. 6.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30 유흥빌딩 204호 상피고인 이송운 경영의 한국합동문서감정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양종석이 상 피고인 이송운에게 피고인 이세용대한 피고사건 증거물의 필적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담당직원이 감정을 잘하여 그 감정결과가 이세용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해 8. 24경에 금 200만원, 같은 해 9. 22경에 금 250만원을 위 이송운의 309 - 04 - 031142 조흥은행 통장계좌에 온라인 입금시켜 당시 피고인 이세용의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상 피고인 이송운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2. 같은 이세용은

가. 1989. 5. 하순 일자미상 15:00경 서울 중구 서소



문동 소재 진다방에서 사설감정인인 상 피고인 이인환에게 피고인이 재판중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재판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필적감정의뢰를 하거나 피고인과 공소의 조병길과의 사이에 계류중인 대전지방법원 88가합 3615호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사건 또는 피고인이 고소하여 공소제기되어 재판계류중에 있던 공소의 조병길에 대한 위중등 피고사건에서 조병길 명의의 각서 및 인중촉탁서 등에 대한 필적감정의뢰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측에 유리하게 문서를 감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당시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상 피고인 이인환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나. 같은 해 8. 19.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김형영의 처인 공소의 신귀분의 036-21-0251-741 국민은행 통장계좌에 금 200만원을 온라인 입금시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1990. 4. 하순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대전지방법원에서 감정되던 공소의 조병길의 필적감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가 피고인에게 유리해서 고맙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같은 양승호는

가. 1990. 9. 초순 일자미상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재판계류중이던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 563호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등죄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가 증거물인 약속어음 보관증의 변조 및 필혼조작 가능성에 대한 사실 조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한다는 것을 알고 상 피고인 신찬석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

서분석실장인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회신을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상 피고인 신찬석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나. 같은 해 12. 초순 일자미상경 위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김형영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등죄 피고사건에 감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상 피고인 신찬석에게 담당재판부가 다른 방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감정의뢰를 할 때 위 김형영이 감정불능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회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전달하여 달라고 같은 해 12. 3. 후석동 우체국에서 금 200만원, 같은 달 5. 삼성빌딩 우체국에서 금 200만원 포함 금 400만원을 상 피고인 신찬석의 012658-0006447 우체국 통장계좌에 입금시켜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상 피고인 신찬석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4. 같은 이승문은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양종석으로부터 위와같은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도합금 45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받아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을 뇌물을 교부받고

5. 같은 신찬석은

가. (1) 1990. 7. 31. 14:00경 위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공소의 이귀덕으로부터 동인이 고소하여 전북도경찰국에서 수사중인 공소의 조종수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전북도경찰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의뢰를 하여 동 연구소 직원이 감정관계로 전주에 출장 나오는데 동 연구소의 필적감정이 공소의 이귀덕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출장비조로 전달

하여 달라는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당시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받고

(2)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피고인 양승호로부터 위와같은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도합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받고

나. (1) 1990. 8. 1.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의 (1)항 기재내용과 같이 공소의 이귀덕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그경 위 김형영의 37907-02-214201 서울 신한은행 통장계좌에 금 35만원을 입금시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위 가.의 (2)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양승호로부터 위와같은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도합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사설감정인인 상 피고인 이인환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사례비조로 전달하여 달라면서 1990. 9. 초순 일자미상경 위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금 70만원, 같은 해 12. 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금 140만원, 같은 달 6. 1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금 140만원 포함 금 350만원을 각 교부하여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상 피고인 이인환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6. 같은 이인환은

가. (1) 위 제2의 가. 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이세용으로부터 위와같은 부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받고

(2) 1990. 7. 31. 15:00경 위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무실에서 공소의 이귀덕으로부터 동인이 고소하여 전북도경찰국에서 수사중인 공소의 조종수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전북도경찰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의뢰를 하였는데 동 연구소의 필적감정이 공소의 이귀덕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전달하여 달라는 금 30만원을 교부받아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받고

(3) 위 제5의 나. (2)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신찬석으로부터 위와같은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도합 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당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받고

나. 1989. 5. 하순 일자미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상호미상 생맥주집에서 상 피고인 김형영에게 위 가.의 (1)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경부터 199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제1, 5, 7, 8, 9순위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금 58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7. 같은 김형영은

1989. 5. 하순 일자미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상호미상 생맥주집에서 상 피고인 이인환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경부터 199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상 피고인 이인환등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금 1,035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별 지”

범죄 일람표

| 순위 | 일시                             | 장소  | 공여자 | 수수자 | 수수금액<br>(만원) | 명목  |
|----|--------------------------------|---|-----|-----|--------------|---|
| 1  | 1989. 5. 하순<br>일자미상경<br>20:00경 | 서울 서대문구<br>홍은동 소재<br>유진상가 2층<br>상호미상 생맥주집 | 이인환 | 김형영 | 200          | 이세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등에서 법원이 문서감정의뢰를 할 것이니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명목   |
| 2  | 같은 해 8. 19. 시간<br>미상경          | 대전시 소재<br>국민은행<br>중부지점                    | 이세용 | "   | 200          | 이세용의 고소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류 중에 있던 건의 조병길에 대한 위증등 피고사건에서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의뢰시 이세용에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신귀분의 국민은행 036-21-0251-741 계좌에 송금하여 그경 이 통장에 입금 |
| 3  | 1990. 4. 하순<br>19:00경          | 서울 중구 소재<br>프라자호텔 지하<br>양과점               | "   | "   | 200          | 위 조병길에 대한 위증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감정을 잘해 이세용이 유리하게 되어 고맙다는 명목   |
| 4  | 1989. 12. 9. 시간<br>미상경         | 서울 양천구 신월<br>동 국립과학수사<br>연구소 사무실내         | 강태호 | "   | 20           | 양승호의 사문서변조등 사건의 형사제1심에서 강태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주어 고맙다는 명목   |
| 5  | 1990. 7. 하순<br>일자미상<br>20:00경  | 서울 서대문구<br>홍은동 소재<br>유진상가 2층<br>상호미상 생맥주집 | 이인환 | "   | 30           | 조종수의 사문서위조등 사건에 관하여 유서등의 필적감정 요청시 이귀덕에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명목  |
| 6  | 같은해 8. 1. 시간<br>미상경            | 서울 서대문구<br>소재 중앙감정원                       | 신찬석 | "   | 35           | 위 5와 같은 명목으로 피의자의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 37907-02-214201 계좌에 송금하여 그경 위통장에 입금  |
| 7  | 같은해 9. 초순<br>20:00경            | 서울 서대문구<br>홍은동 소재<br>유진상가 2층<br>상호미상 생맥주집 | 이인환 | "   | 70           | 양승호의 사문서변조등 사건의 형사제1심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잘해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   |
| 8  | 같은해 12. 4. 20:00경              | 위 같은 생맥주집                                 | "   | "   | 140          | 양승호의 사문서변조등 사건의 형사제1심에서 문서서류에 대한 법원의 재감정 요청시 양승호에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명목   |
| 9  | 같은해 12. 6. 20:00경              | "   | "   | "   | 140          | "   |

도 합 금 1035만원

자료 마-1-21 (공판기록 2939~2954) 증제27의 19

피의자 신문조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 세 용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1992. 2. 15. 서울지방법청에서 검사 양종모는 검찰주사 정비호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이세용(李世容),

연령은 41세, 생년월일 1950. 9. 9,

직업은 건설업(세기건설 대표이사),

직장 전화번호

본적은 :

주거는

주택 전화번호는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75. 10. 30. 대전지법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 82. 7. 27.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차 공중중서원본부실기재, 사문서위조, 사기, 배임 등으로 7-8회 고소를 당하여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1988. 5. 11. 서울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형사집행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동법원에서 1988. 11. 10.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1990.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 1966. 10.경 청주상업고등학교 1년 중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고, 고향은 대전으로서 아버님이 대전에서 한약방을 오랫동안 경영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한약품관리, 구입 등의 일을 하면서 도와주다가 72. 3년경부터 인삼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6년간 인삼중개업을 하다가 1978.경 대전 인삼중개업계의 큰 손이라는 임봉규와 마찰이 생겨서 그 일을 그만두고 세진건설산업주식회사라는 건설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982.년경에 서울에서 명일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너무 벅차서 세진건설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던 명일건설을 증원건설로 상호를 바꿔서 대전으로 본점을 옮겨 대전으로 거점을 옮겨, 도로포장, 토목공사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1984.년경 중앙개발을 다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5. 5.경에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건설회사 신영건설을 최영숙 사장으로 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88. 5. 11. 제가 임봉규의 진정으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부진, 1989. 2. 28. 보석으로 석방되어 중앙개발을 처분하고 증원건설에 대한 대표이사 권한을 한치준에게 위임하고, 저는 신영건설과 세기건설 등 2개 업체만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 :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처 김용선 38세, 자 이보람 12세 국민학생, 자 이한결 10세 국민학생 등 4가족입니다.

문 : 병역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81.년경 소집면제가 되어 현재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문 : 재산 및 월수입은 어떠한가요.

답 : 부동산으로는 살고 있는 아파트 33평 시가 1억원 가량, 신탄전에 대지 711평 시가 10억원 가량, 대전시 용운동 소재 상가건물 3층 330평 시가 10억원 가량, 2개 회사 자산 합계 금 5억원 가량 등이 있고, 월수입은 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문 : 종교는 어떠한가요.

답 :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감리교회 집사입니다.

문 : 정당 및 사회활동은 어떠한가요.

답 : 사랑의 마을(양로원)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중부매일신문 대전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